

# 『黃帝內經』에 기재된 眼科의 生理·病理에 관한 연구

朴晶禧 · 金基郁 · 朴炫局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 A study of ophthalmologic physiology and pathology in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Jeng-Hee Park, Ki-wook Kim, Hyun-kook Park

Department of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kook University

Below in [chart], are the texts concerned with ophthalmology in 『Huang Di Nei Jing(黃帝內經)』. They are classified into the part of physiology,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chart] The number of texts concerned with ophthalmology, according the classification of physiology, pathology, diagnosis and treatment in 『Nei Jing』

Section (分類)	Details(細目)	Number of texts (條文數)	Subtotal (小計)	Total (合計)
Physiology (生理)	The eye and Nature(自然)	20	163	376 (重複 36個) (36 repeated)
	The eye and Yin Yang(陰陽)	12		
	The eye and Zang Fu(臟腑)	30		
	The eye and Jing Luo(經絡)	43		
	The eye and Jing(精) Qi(氣) Jin(津) Ye(液) Xie(血)	26		
	The eye and others(其他)	32		
Pathology (病理)	Yun Qi(運氣) lesion	52	169	
	Yin Yang(陰陽) lesion	14		
	Zang Fu(臟腑) lesion	24		
	Jing Luo(經絡) lesion	48		
	Jing(精) Qi(氣) Jin(津) Ye(液) Xie(血) lesion	19		
	Other(其他) lesions	12		
Diagnosis (診斷)	Wang Zhen(望診)	40	42	
	Others(其他)	2		
Treatment (治療)	Acupuncture(鍼灸) treatment	35	38	
	Drug(藥物) treatment	3		

As we can see above, the ophthalmology theory of 『Huang Di Nei Jing』 had a huge effect on the whole oriental medicine field. It deepened the theory into a special subject of the ophthalmology study in the coming ages and so, I hope that there would be a much more thorough research on it in the future.

key words: ophthalmology, 『Huang Di Nei Jing』



(150?250?)의 본명은 나가르주나이고 대승불교사상을 연구하여 기초를 확립한 승려 겸 의학자로 알려져 있고, 龍樹菩薩<sup>12)</sup>이라 불리운다. 이 책은 인도의 안과 의서를 번역했거나 轉術한 것으로 중국의학과 인도의학을 결합시킨 저작에 해당한다<sup>13)</sup>. 이러한 안과 의서를 바탕으로 ‘五輪’、‘八廓’、‘內障’、‘外障’ 등 안과 학설이 발전되었다. 歷代 醫政制度에서는 眼科를 독립된 분과로 세워 전문적으로 가르치기도 하였다<sup>14)</sup>.

따라서 본 논문은 의과학적으로 眼科學術發展史의 根柢가 되는 『黃帝內經』(이하 『내경』이라 간칭함)에 기재된 眼科 醫論을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생리 방면에 있어 눈과 自然、陰陽、臟腑、經絡、精氣·津·液·血에 관련한 조문을 분석한다.

둘째. 병리 방면인 運氣、陰陽、臟腑、經絡、精氣·津·液·血, 기타 병변에 관련한 조문을 분석한다.

셋째. 진단 방면에 있어 망진, 기타 관련된 조문을 분석한다.

넷째. 치료 방면에 있어 침구, 약물 치료에 관련한 조문을 분석한다.

따라서 논자는 이상의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 II. 本 論

### 1. 눈의 생리

#### 1) 눈과 자연

눈은 인체의 감각기관의 하나로써 九竅에 속하며 五官 중 시력을 담당한다. 그리고 五行配屬에 있어서는 木에 배속되고 있어서 자연에 있어서 方位、五色、四季에 상응하는 바가 있고 九竅에 포함되어 九野에 응한다. 또한 시력은 自然界의 陽氣의 성쇠변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눈과 자연계와의 상응관계에 대하여 기재한 『내경』의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五行의 배속에서 東方과 木과 風과 肝과 目的의 관계(『素問·金匱真言論』<sup>15)</sup>、『素問·陰陽應象大論』<sup>16)</sup>、『素問·五常政大論』<sup>17)</sup>)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으며, 땅에는 九州가 있고 사람에게는 九竅가 있다.”(『靈樞·邪客』<sup>18)</sup>、 “천지의 사이, 六合의 안에서 그 기는 九州와 九竅、五臟、十二節에 있으니, 모두 천기에 통한다.”(『素問·生氣通天論』<sup>19)</sup>、 “사람의 皮는 天에 응하고 사람의 肉은 地에 응하며 사람의 脈은 人에 응하고 사람의 筋은 時에 응하며, 사람의 소리는 五音에 응하고 사람의 陰陽이 氣를 합하는 것

1983年, p. 918. 『崇文總目』에는 『龍樹眼論』이라 하였고 『醫方類聚』에서는 『龍樹菩薩眼論』이라 하였다.

12) 혹은 大士 또는 禪師라 한다. 北宋 시대에는 英宗 趙曙의 이름을 避諱하고자 『龍木』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13) 按 : 明·薛己의 『原機啓微附錄·自序』에 이르기를 “嘗讀南齊龍樹王所著『龍木論』”이라 했으니, 龍木은 中國 南齊(5세기) 사람을 가리킨다.

14) 朴炫局 외 2人 著 : 『中國科學技術史』, 一中社, 2002年. 『眼科學 發展의 基礎時期(隋朝唐朝)에는 太醫署 내에 耳目口齒科 설립하였으며, 獨立發展時期(宋朝元朝)에는 太醫局 내의 교과과정에 안과가 독립 학과로 인정하였고, 興盛時期(明朝清朝鴉片戰爭以前)에는 太醫院 내에 안과 존재하여 문헌, 이론, 임상 방면에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다.’

15) “東方青色, 入通於肝, 開竅於目, 藏精於肝, 其病發驚駭.”

16) “岐伯對曰 東方生風, 風生木, 木生酸, 酸生肝, 肝生筋, 筋生心, 肝主目. 其在天爲玄, 在人爲道, 在地爲化, 化生五味, 道生智, 玄生神,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體爲筋, 在藏爲肝, 在色爲蒼, 在音爲角, 在聲爲呼, 在變動爲握, 在竅爲目, 在味爲酸, 在志爲怒.”

17) “其氣端, 其性隨, 其用曲直, 其化生榮, 其類草木, 其政發散, 其候溫和, 其令風, 其藏肝, 肝其畏清, 其主目, 其穀麻, 其果李, 其實漿, 其應春, 其蟲毛, 其畜犬, 其色蒼, 其養筋, 其病裏急支滿, 其味酸, 其音角, 其物中堅, 其數八.”

18)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19) “天地之間, 六合之內, 其氣九州, 九竅, 五藏, 十一節, 皆乎天氣.”

은 六律에 응하며 사람의 치아, 얼굴, 눈은 七星에 응하고 사람의 출입하는 氣는 風에 응하며 사람의 九竅 三百六十五絡은 九野에 상응한다.”(『素問·鍼解』)<sup>20)</sup>、“天은 서북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북쪽은 陰이 되고 사람의 오른쪽 귀와 눈은 왼쪽만 못하다.”(『素問·陰陽應象大論』)<sup>21)</sup>、“이로 인하여 嗜慾이 그 눈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며, 淫邪가 그 마음을 疑惑되게 하지 못하고 어리석거나 지혜롭거나 간에 혹은 현명하여 능력이 있거나 불초하여 무능한 사람이던 간에 물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양생 수양하는 도에 합치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백살을 넘도록 쇠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덕이 온전하여 쇠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素問·上古天真論』)<sup>22)</sup>、“오랫동안 앓아 있다가 일어서면 눈앞이 흐려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은 만물에 음양이 주재하지 않는 바가 없는데, 가을의 기가 시작되어 서리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마야호로 萬物을 肅殺하기 시작하니 陰陽이 안에서 없어지므로 눈앞이 흐려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는 것이다.”(『素問·脈解』)<sup>23)</sup>、“기가 陽으로 행하면 陽氣가 성해지고, 양기가 성하면 陽脈으로 빠져 들어가서 陰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고 陰虛해지므로 잠을 잘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으며, 땅에는 九州가 있고 사람에게는 九竅가 있습니다.”(『靈樞·邪客』)<sup>24)</sup>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 “人皮應天, 人肉應地, 人脈應人, 人筋應時, 人聲應音, 人陰陽合氣應律, 人齒面目應星, 人出入氣應風, 人九竅, 三百六十五絡 應野.”

21) “天不足西北, 故西北方陰也, 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22) “是以嗜欲不能勞其目, 淫邪不能惑其心, 愚智賢不肖, 不懼於物, 故合於道, 所以能年皆度百歲而動作不衰者, 以其德全不危也.”

23) “久坐起則目眩無所見者, 萬物陰陽不定未有主也,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 陰陽內奪, 故目眩無所見也.”

24) “行於陽則陽氣盛, 陽氣盛則陽陷, 不得入於陰, 陰虛, 故目不瞑,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즉 눈은 四時, 九州, 方位, 지리적 특징과 더불어 서로 상응하는 관계에 있다고 하였고, 이밖에도 『내경』에서는 10개 조문이 눈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sup>25)</sup>.

## 2) 눈과 陰陽

눈과 음양의 생리적 측면에서 설명한 『내경』의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천인상응의 관점에서 좀더 발전된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단순하게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사람에게는 두 눈이 있으며, 땅에는 구주가 있고 사람에게는 구구가 있다.”(『靈樞·邪客』)<sup>26)</sup>고 한 것과 같이 ‘九竅가 九野에 응한다.’는

25) “中古之時, 有至人者, 淳德全道, 和於陰陽, 調於四時, 去世離俗, 積精全神, 游行天地之間, 視聽八達之外.”(『素問·上古天真論』)

“岐伯曰 東方陽也, 陽者其精并於上, 并於上, 則上明而下虛, 故使耳目聰明, 而手足不便也, 西方陰也, 陰者其精并於下, 并於下, 則下盛而上虛, 故其耳目不聰明, 而手足便也.”(『素問·陰陽應象大論』)

“六經爲川, 腸胃爲海, 九竅爲水注之氣.”(『素問·陰陽應象大論』)

“夫自古通天者, 生之本, 本於陰陽, 其氣九州九竅, 皆通乎天氣.”(『素問·六節藏象論』)

“所謂色不能久立, 久坐起則目眩無所見者, 萬物陰陽不定未有主也, 秋氣始至, 微霜始下, 而方殺萬物, 陰陽內奪, 故目眩無所見也.”(『素問·脈解』)

“人心意應八風, 人氣應天, 人髮齒耳目五聲, 應五音六律, 人陰陽脈血氣應地, 人肝目應之九.”(『素問·鍼解』)

“其氣端, 其性隨, 其用曲直, 其化生榮, 其類草木, 其政發散, 其候溫和, 其令風, 其藏肝, 肝其畏清, 其主目, 其穀麻, 其果李, 其實厥, 其應春, 其蟲毛, 其畜犬, 其色蒼, 其養筋, 其病裏急支滿, 其味酸, 其音角, 其物中堅, 其數八.”(『素問·五常政大論』)

“行於陽則陽氣盛, 陽氣盛則陽陷, 不得入於陰, 陰虛, 故目不瞑,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靈樞·邪客』)

“故智者之養生也, 必順四時而適寒暑, 和喜怒而安居處, 節陰陽而調剛柔, 如是則僻邪不至, 長生久視.”(『靈樞·本神』)

“是故平旦陰盡, 陽氣出於目, 目張則氣上行於頭, 循項下足太陽, 循背下至小指之端,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手太陽, 下至小指之間外側, 其散者, 別於目銳眥, 下足少陽, 注小指次指之間, 以上循手少陽之分側, 下至小指之間.”(『靈樞·衛氣行』)

26)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수준의 설명에서 “天은 서북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북쪽은 陰이 되고 사람의 오른쪽 귀와 눈은 왼쪽만 못하다.”(『素問·陰陽應象大論』)<sup>27)</sup>와 같이 동서남북 지형이 가지는 음양특성으로 시력의 강약을 설명하거나 자연계방위가 가지는 음양특성과 시력 및 수족의 움직임을 아울러 설명하는 수준으로 발전된 내용을 함께 기재하고 있다.

또한 안구자체의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그러므로 눈동자의 검은자위는 陰을 모방하고 흰자위의 赤脈은 陽을 모방하였다. 그러므로 陰陽이 합쳐 눈이 되는 것이다.”(『靈樞·大惑論』)<sup>28)</sup>라고 하여 음양이론을 이용하여 눈의 구조 및 그 기능상의 차이점을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양이론의 실천을 통하여 오랫동안 시력을 보존하는 방법 또한 기재하고 있다. 『내경』에 기재된 눈과 음양과의 관계를 설명한 내용을 살펴보면, “清淨한 陽은 天이 되고, 重濁한 陰은 地가 되며, 地氣가 올라가 구름이 되고 天氣가 내려오에 비가 되며, 비는 지기로부터 나오며 구름은 천기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청정한 양기는 上竅로 나가고 중탁한 음기는 下竅로 배출되며, 청정한 양기는 주리에 발산하며 탁한 음기는 오장으로 달려가며, 清陽한 기운은 사지를 실하게 하고 濁陰은 육부로 돌아갑니다.”(『素問·陰陽應象大論』)<sup>29)</sup> “陰味는 하기로 배출되고 양기는 상규로 나갑니다. 미가 후한 것은 순음이 되고 미가 박한 것은 음 중의 양이 되며, 기가 후한 것은 순양이 되고, 기가 엷은 것은 양 중의 음이 됩니다.”(『素問·陰陽應象大論』)<sup>30)</sup> “하늘은 서북방에서 부족하므로 서북방은 음이며, 오른쪽 눈 귀가 왼쪽 눈 귀의 밝음

만 같지 못하고, 땅은 동남방에서 채우지 못하므로 양이며, 왼쪽 수족이 오른쪽 수족의 강함만 같지 못합니다. …… 동방은 양이며, 양이라는 것은 그 정이 위로 올라가 모이고, 위로 모이면 위가 밝아지고 아래는 허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목으로 하여금 총명하게 하고 수족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방은 음이며, 음이라는 것은 그 정이 아래로 내려서 모이고, 아래로 모이면 아래가 성해지고 위가 허해집니다. 그러므로 이목이 총명하지 못하고 수족이 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사기에 감염됨에 그 위에 있어서는 즉 오른쪽이 심하고 아래에 있어서는 왼쪽이 심하니, 이는 천지음양의 온전할 수 없는 바이기 때문이므로 사기가 거기에 머무는 것입니다.”(『素問·陰陽應象大論』)<sup>31)</sup>라고 하여 눈의 기능이 清陽之氣의 영향을 많이 받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 때문에 성인은 음양을 진열하여, 근맥이 화동하며, 골수가 견고해지고 기혈이 모두 순해지니, 이와 같으면 내외가 조화하여 사기가 해칠 수 없고, 이목이 총명해지며, 진기가 확립되어 처음과 같은 상태가 유지됩니다.”(『素問·生氣通天論』)<sup>32)</sup> “우매한 자는 부족한 반면 지혜로운 자는 남아 뚝이 있게 되고, 남아돌면 귀와 눈이 총명하고 신체가 가볍고 강건해져, 늙은 사람이 다시 건장해지고 건장했던 사람은 더욱 건장해집니다.”(『素問·陰陽應象大論』)<sup>33)</sup>라 하여 陰陽의 精氣를 잘 간직해야 눈의 총명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예로부터 하늘의 천기와 통하는 것

27) “天不足西北，故西北方陰也。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

28) “是故瞳子黑眼法於陰，白眼赤脈法於陽也，故陰陽合傳而精明也。”

29) “清陽爲天，濁陰爲地，地氣上爲雲，天氣下爲雨，雨出地氣，雲出天氣，故清陽出上竅，濁陰出下竅，清陽發腠理，濁陰走五臟，清陽實四肢，濁陰歸六腑。”

30) “陰味出下竅，陽氣出上竅，味厚者爲陰，薄爲陰之陽，氣厚者爲陽，薄爲陽之陰。”

31) “天不足西北，故西北方陰也。而人右耳目不如左明也，地不滿東南，故東南方陽也。而人左手足不如右強也。……東方陽也，陽者其精並於上，並於上則上明而下虛，故使耳目聰明而手足不便也，西方陰也，陰者其精並於下，並於下則下盛而上虛，故其耳目不聰明而手足便也。故俱感於邪，其在上則右甚，在下則左甚，此天地陰陽所不能全也，故邪居之。”

32) “是以聖人陳陰陽，筋脈而同，骨髓堅固，氣血皆從，如是則內外調和，邪不能害，耳目聰明，氣立如故。”

33) “愚者不足，智者有餘，有餘則耳目聰明，身體輕強，老者復壯，壯者益治。”

이 생명의 근본이며, 음과 양을 근본으로 해 왔습니다. 그것의 기는 땅의 구주와 사람의 九竅에 퍼져 있어서, 모두가 천기와 통하고 있습니다.”(『素問·六節藏象論』)<sup>34)</sup>、“양기가 쇠진하고 음기가 성하면 눈을 감고 자게 되며 음기가 쇠진하고 양기가 상하면 깨어나게 됩니다.”(『靈樞·口問』)<sup>35)</sup>라고 하여 눈을 포함하는 구구에도 천지음양의 기운이 퍼져있으며, 양기와 음기의 성쇠에 따라서 수면의 여부가 결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수는 음인데, 눈 밑 역시 음에 속하는 부위입니다. 복부는 지음이 위치하는 부위이므로 수사가 복중에 있으면 반드시 눈 밑에 미미한 부종이 나타납니다.”(『素問·評熱病論』)<sup>36)</sup>고 하여目を 陰部로 해석하였다.

### 3) 눈과 臟腑

눈과 장부와의 관련한 『내경』의 조문을 살펴보면, “오관은 오장의 외적 표현입니다.”(『靈樞·五閱五使』)<sup>37)</sup>、“오장은 항상 내부에서 위의 칠규와 통합합니다. 그러므로 폐기는 코로 통하는데 …… 肝氣는 눈으로 통하는데 간이 조화로우면 눈이 오색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sup>38)</sup>(『靈樞·脈度』)、“동방은 풍을 낳고 풍은 목을 낳으며, 목은 산미를 낳고 산은 간을 낳으며, 간은 근을 낳아 길러 주고 근은 심을 낳으며, 간은 목을 주관합니다.”<sup>39)</sup>(『素問·陰陽應象大論』)라 하여 오장과 오관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특히 오장배속 관계에 있어 “눈은 간의 官竅이며”(『靈樞·五閱五使』)<sup>40)</sup>，“宗筋이 모여드는 곳”(『

靈樞·口問』)<sup>41)</sup>으로 인식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靈樞·大惑論』에서 말한 “五藏六府의 精氣는 모두 눈에 공급되어 精이 된다. 精이 모인 곳이 눈(眼)인데, 骨의 精은 瞳子、筋의 精은 黑眼、血의 精은 絡、氣의 精은 白眼、肌肉의 精은 約束(눈꺼풀)에 해당되며, 근, 골, 혈, 기의 정을 엮어매고 맥과 더불어 합쳐져 목계가 되어, 위로는 뇌가 속하고 뒤로는 목덜미의 중간으로 나옵니다.”<sup>42)</sup>라 하여 눈이 사물을 보는 것은 오장육부의 정기가 끊임없이 눈에 공급된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에 근거하여 눈과 臟이 하나라는 학설이 만들어 졌다. 이후에 안과의 독특한 이론인 오륜학설도 이러한 기초에서 발전한 것이다.

이외에도 “동쪽은 青色이며 간으로 들어가며, 눈에 開竅하고 肝에 精을 저장하며 그 병은 놀라는 것”(『素問·金匱真言論』)<sup>43)</sup>라 하여 ‘肝이 눈에 개규한다.’는 오행속성을 이용하여 肝과 目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러므로 사람이 누우면 血이 肝으로 들어가고 肝이 血을 받으면 볼 수 있다.”(『素問·五藏生成』)<sup>44)</sup>라 하여 肝에 血이 공급되어야 정상적인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함으로써 오행속성에 의존하지 않고 간의 기능과 눈의 기능을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그리고 “아래 눈두덩 이가 크면 담이 이에 튼튼합니다.”(『靈樞·師傳』)<sup>45)</sup>라 하여 눈의 모양을 통하여 담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肝足厥陰脈은 엄지발가

34) “夫自古通天者，生之本，本于陰陽，其氣九州、九竅，皆通乎天氣。”

35) “陽氣盡，陰氣盛，則目膜，陰氣盡，而陽氣盛則睛矣。”

36) “岐伯曰 水者陰也，目下亦陰也，腹者至陰之所居，故水在腹者，必使目下腫也。”

37) “五官者，五藏之閱也。”

38) “五藏常內閱於上七竅也，故肺氣通於鼻 …… 肝氣通於目，肝和則目能辨五色矣。”

39) “東方生風，風生木，木生酸，酸生肝，肝生筋，筋生心，肝主目。”

40) “鼻者 肺之官也、目者 肝之官也、口唇者 脾之官也、舌者 心之官也、耳者 腎之官也。”

41) “心者，五臟六腑之主也。目者，宗脈之所聚也，上液之道也。口鼻者，氣之門戶也。”

42) “五藏六府之精氣，皆上注於目而爲之精。精之窠爲眼，骨之精爲瞳子，筋之精爲黑眼，血之精爲絡，其窠氣之精爲白眼，肌肉之精爲約束，裹擗筋骨血氣之精而與脈并爲系，上屬於腦，後出於項中。”

43) “東方青色，入通於肝，開竅於目，藏精於肝，其病發驚駭。”

44) “故人臥，血歸於肝，肝受血而能視”

45) “目下果大，其膽乃橫。”

락 털 난 곳의 경계에서 시작되어 …… 陰器를 지나 小腹을 지나쳐 胃를 끼고 가서 肝에 屬하고 膈에 絡한다. …… 위로 편도로 올라가서 目系로 이어지고 이마 위로 나가서 獨백과 머리 꼭대기에서 만난다.”(『靈樞·經脈』)<sup>46)</sup>라고 하여 간과 경락 상으로도 관련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눈의 외형과 장부 및 성격의 관계에 대해서는 “용감한 사람은 눈빛이 깊고 확고하며, 눈썹이 꽃꽃이 서고 시선이 똑바르면서 눈에 빛이 나며, 三焦는 가지런히 모양 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 심은 바르고 곧으며, 간은 크고 견실하며, 담즙이 가득 하여 성하고, 성을 내면 기가 성해져서 가슴이 벌어지고 간이 들리며 담이 가로로 놓이고 눈초리가 찢어지면서 눈을 치뜨며 털이 곤두서고 얼굴이 파랗게 되니, 이것이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靈樞·論勇』)<sup>47)</sup> “겁약한 사람은 눈이 큰데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음양이 조화를 잃고, 그 삼초의 무늬는 세로로 놓이며, 감삼 돌기는 짧고 작으며, 간계는 느슨하고, 그 담은 가득하지 않아 세로로 늘어져 있습니다.”(『靈樞·論勇』)<sup>48)</sup>라고 하여 눈매를 통하여 장부의 상태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눈은 肝膽 뿐만 아니라 心의 영향을 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目は 심의 竅이며 色澤은 心의 외재적인 표현”(『靈樞·口問』)<sup>49)</sup>이라 하였고, “슬프면 心이 동요하고 心이 동요하면 오장육부가 모두 동요하게 되고 동요하면 宗脈이 감동하고 宗脈이 감동하면 液道가 열린다. 液道가 열리기 때문에 눈물과 콧물이 나온다.”(『靈樞·口問』)<sup>50)</sup>처럼 눈물의 분비에 있어서는

心역시 肝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눈은 심을 대신하며 심은 신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神精이 문란하여 기능을 다하지 못할 때 돌연히 이상한 곳을 보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져 정신이 맑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된다고 합니다.”(『靈樞·大惑論』)<sup>51)</sup> “눈은 오장육부의 精으로서 영위·혼백이 항상 영양하는 곳이고 神氣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때문에 정신이 피로하면 혼백이 흩어지고 志意가 문란해집니다.”(『靈樞·大惑論』)<sup>52)</sup>처럼 눈은 神氣가 생성되는 곳으로써 정신활동을 주관하는 心의 使이기 때문에 정신이 혼란하면 시각을 통한 상황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내경』에서는 14개 조문이 눈과 장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sup>53)</sup>.

感、宗脈感則液道開、液道開、故泣涕出焉。”

51) “目者、心使也、心者、神之捨也、故神精亂而不轉、卒然見非常處、精神魂魄、散不相得、故曰惑也。”

52) “目者、五臟六腑之精也、營衛魂魄之所常營也、神氣之所生也、故神勞則魂魄散、志意亂”

53) “故人臥、血歸於肝、肝受血而能視、足受血而能步、掌受血而能握、指受血而能攝。”(『素問·五藏生成』)

“五臟化液、心爲汗、肺爲涕、肝爲淚、脾爲涎、腎爲唾、是謂五液。”(『素問·宣明五氣篇』)

“五液、心主汗、肝主泣、肺主涕、腎主唾、脾主涎、此五液所出也。”(『靈樞·九鍼論』)

“其氣端、其性隨、其用曲直、其化生榮、其類草木、其政發散、其候溫和、其令風、其藏肝、肝其畏清、其主目、其穀麻、其果李、其實菹、其應春、其蟲毛、其畜犬、其色蒼、其養筋、其病裏急支滿、其味酸、其音角、其物中堅、其數八。”(『素問·五常政大論』)

“是以俱悲則神氣傳於心精、上不傳於志而志獨悲、故泣出也。”(『素問·解精微論』)

“肝足厥陰之脈、起于大指叢毛之際、上循足跗上廉、去內踝一寸、上踝八寸、交出太陰之後、上膈內廉、循股陰、入毛中、過陰器、抵小腹、挾胃、屬肝、絡膽、上貫膈、布脅肋、循喉嚨之後、上入頰頰、連目系、上出額、與督脈會于頰、其支者、從目系下頰裏、環睛內。”(『靈樞·經脈』)

“肝氣通于目、肝和則目能采五色矣、脾氣通于口、脾和則口能知五穀矣、腎氣通于耳、腎和則耳能聞五音矣。”(『靈樞·脈度』)

“五臟六腑、心爲之主、耳爲之聽、目爲之候、肺爲之相、肝爲之將、脾爲之衛、腎爲之主外、故五臟六腑之津液、盡上滲於目、心悲氣并、則心系急、心系急則肺舉、肺舉則液上溢、夫心系與肺、不能常舉、乍上乍下、故咳

46) “肝足厥陰之脈、起于大指叢毛之際 …… 過陰器、抵小腹、挾胃、屬肝、絡膽 …… 上入頰頰、連目系、上出額、與督脈會于頰”

47) “勇士者、目深以固、長衡直揚、三焦理橫、其心端直、其肝大以堅、其膽滿以傍、怒則氣盛而胸脹、肝舉而膽橫、皆裂而目揚、毛起而面蒼、此勇士之由然者也。”

48) “怯士者、目大而不減、陰陽相失、其焦理縱、口肝短而小、肝系緩、其膽不滿而縱。”

49) “心者、五藏六府之主也、目者、宗脈之所聚也”

50) “故悲哀愁憂則心動、心動則五藏六府皆搖、搖則宗脈

4) 눈과 經絡

『내경』에서 눈과 경락과의 관계를 “또한 심은 맥과 합하니 모든 脈은 모두 눈에 속하여 있다”(『素問·五藏生成』)<sup>54)</sup>고 하였으며, “12經脈과 365絡은 그 血氣가 모두 얼굴로 올라가 上竅로 흘러 들어가는데, 精과 陽氣는 목표로 올라가서 사물을 보고, 別絡은 귀로 들어가 소리를 듣는다.”(『靈樞·邪氣藏府病形』)<sup>55)</sup>라 하여 12경맥을 통하여 陽氣가 눈에 모인다고 하였다. 또한 “눈에는 宗脈이 所聚한다.”(『靈樞·口問』)<sup>56)</sup>고 한 것은 어떤 경맥들은 눈에서 시작되고, 혹은 눈에서 그치고, 혹은 눈을 통과하고, 혹은 눈의 주위에 분포한다고 논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내경』의 안과 관련 경락학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足太陽脈이 項을 통하여 腦로 들어간 것은 눈에 속하므로 이것을 目系라 칭한다(『靈樞·寒熱病』)<sup>57)</sup>. 陰蹻脈과 陽蹻脈의 陰陽이 相交하여 陽은

陰으로 陰은 陽으로 진행되어 目銳眦에서 교접하나 陽氣가 왕성하면 瞑目하고 陰氣가 왕성하면 瞑目한다(『靈樞·寒熱病』)<sup>58)</sup> 蹻脈이 目內眦에 속하였기 때문에 氣가 滋養하지 못하면 眼目이 不合한다(『靈樞·脈度』)<sup>59)</sup>. 뿐만 아니라 『素問·骨空論』에서는 任·督脈까지도 눈과 絡屬관계를 맺고 있다<sup>60)</sup><sup>61)</sup>고 하였다.

足太陽筋이 支脈은 目的 上綱이 되어 眼의 開閉를 관장하며(『靈樞·經筋』)<sup>62)</sup>, 足陽明의 筋은 위로 太陽과 합하여 目的 下綱이 되어 開閉를 관장한다(『靈樞·經筋』)<sup>63)</sup>. 足少陽筋의 支脈은 目眦와 연결되어 外維가 되고 足陽明脈을 들어서 目系에 繫한다(『靈樞·經筋』)<sup>64)</sup>.

足少陽脈은 目銳眦에서 起하여 銳眦의 後面에 까지 이르고(『靈樞·經脈』)<sup>65)</sup>, 手太陽脈이 또한 目銳眦에 이르며 支脈은 目內眦에 이른다(『靈樞·經脈』)<sup>66)</sup>. 手少陽脈은 目銳眦에 이르고(『靈樞·經脈』)

而泣出矣.”(『靈樞·五藏津液別』)

“目下果大，其臍乃橫.”(『靈樞·師傳』)

“故五藏六府之津液，盡上滲于目，心悲氣并則心系急，心系急則肺舉，肺舉則液上溢.”(『靈樞·五藏津液別』)

“少俞曰 勇士者，目深以固，長衝直竅，三焦理橫，其心端直，其肝大以堅，其膽滿以傍，怒則氣盛而張，肝舉而膽橫，眦裂而目眦，毛起而面蒼，此勇士之由然者也.”(『靈樞·論勇』)

“少俞曰 怯士者，目大而不減，陰陽相失，其焦理縱，口口衄短而小，肝系緩，其膽不滿而縱，腸胃挺，脊下空，雖方大怒，氣不能滿其，肝肺雖舉，氣衰復下，故不能久怒，此怯士之所由然者也.”(『靈樞·論勇』)

“五十歲，肝氣始衰，肝葉始薄，膽汁始減，目始不明.”(『靈樞·天年』)

“岐伯曰 胃氣上注于肺，其悍氣上衝頭者，循咽，上走空竅，循眼系，入絡腦，出頤，下客主人，循牙車，合陽明，并下人迎，此胃氣別走于陽明者也.”(『靈樞·動脈』)

54) “諸脈者皆屬於目，諸髓者皆屬於腦，諸筋者皆屬於節，諸血者皆屬於心，諸氣者皆屬於肺，此四支八溪之朝夕也.”

55) “十二經脈，三百六十五絡，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其別氣走於耳而爲聽”

56) “目者，宗脈之所聚也，上液之道也.”

57) “足太陽有通項入於腦者，正屬日本，名曰眼系，頭目苦痛，取之在項中兩筋間，入腦乃別.”

58) “陰蹻，陽蹻，陰陽相交，陽入陰，陰出陽，交於目銳眦，陽氣盛則瞑目，陰氣盛則瞑目.”

59) “蹻脈者，少陰之別，起於然骨之後，上內踝之上，直上循陰股，入陰，上循胸裏，入缺盆，上出人迎之前，入頤，屬目內眦，合於太陽，陽蹻而上行，氣并相還，則爲濡目，氣不榮則目不合.”

60) “任脈者，起於中極之下，以上毛際，循腹裏，上關元，至咽喉，上頤循面入目.”

61) “督脈者，起於少腹，以下骨中央，女子入繫廷孔，其孔，溺孔之端也，其絡循陰器，合纂間，繞纂後，別繞臂至少陰，與巨陽中絡者合，少陰上股內後廉，貫脊屬腎，與太陽起於目內眦，上額交巔，上入絡腦，還出別下項，循肩膊內，俠脊抵腰中，入循膂絡腎.”

62) “足太陽之筋 …… 其支者，爲目上綱，下結於頤.”

63) “足陽明之筋，起於中三趾 …… 其直者，上循伏兔，上結於脾，聚於陰器，上腹而布，至缺盆而結，上頤，上挾口，合於頤，下結於鼻，上合於太陽，太陽爲目上綱，陽明爲目下綱.”

64) “足少陽之筋，起於小趾次趾 …… 支者，結於目眦爲外維.”

65) “膽足少陽之脈，起於目銳眦，上抵頭角，下耳後循頸，手少陽之前，至肩上，却交出手少陽之後，入缺盆，其支者，從耳後入耳中，出走耳前，至目銳眦後，其支者，別銳眦，下大迎，合於手少陽，抵於頤下.”

66) “小腸手太陽之脈，其於小指之端 …… 其支者，從缺盆循頤上頤，至目銳眦，却入耳中，其支者，別頤上頤，抵鼻，至目內眦，斜絡於頤.”

』<sup>67)</sup>, 手少陰脈은 目系에 系하며(『靈樞·經脈篇』<sup>68)</sup>, 足厥陰은 目系로 連하고(『靈樞·經脈』<sup>69)</sup>, 手少陰脈은 目內者에 合하며(『靈樞·經別』<sup>70)</sup>, 足少陽正經은 目系에 系하여 少陽과 外眥에서 合한다(『靈樞·經別』<sup>71)</sup>).

이밖에도 『내경』에서는 25개 조문이 睛과 눈과의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sup>72)</sup>.

- 67) “三焦手少陽之脈，起於小指次指之端……其支者，從耳後入耳中，出走耳前，過客主人前，交頰，至目銳眥。”
- 68) “心手少陰之脈，起於心中，出屬心系，下膈，絡小腸。其支者，從心系，上挾咽，繫目系。”
- 69) “肝足厥陰之脈，起於大趾叢毛之際……循喉，嚙之後，上入，頰頰，連目系，上出頰，與督脈會於巔。其支者，從目系下頰，環睛內。”
- 70) “手少陰之正，別入於淵腋兩筋之間，屬於心，上走喉嚨，出於面，合目內眥，此爲四合也。”
- 71) “足少陽之正，繞腭入毛際，合於厥陰……散於面，繫目系，合少陽於外眥也。”
- 72) “其少腹直上者，貫齊中央，上貫心，入喉上頰，環睛，上繫兩目之中中央。”(『素問·骨空論』)， “手太陽脈氣所發(指與其經有密切聯系的穴位)者，三十六穴，目內眥，各一，目外，各一。”(『素問·氣府論』)， “任脈之氣所發者，二十八穴……目下各一。”(『素問·氣府論』)， “足少陽脈氣所發者，六十二穴，兩角上，各二，直目上髮際內，各五，耳前角上，各一，耳前之角下，各一，銳髮下，各一，客主人，各一，耳後陷中，各一。”(『素問·氣府論』)， “太陽根于至陰，結于命門，命門者，目也。”(『靈樞·根結』)， “是動則病隘痛，頰腫，不可以顧，肩似拔，頰似折。是主液所生病者，耳聾，目黃，頰腫，頰，頰，肩，臑，肘，臂外後廉痛。”(『靈樞·經脈』)， “是主筋所生病者，痔，癢，狂，癲疾，頭顛項痛，目黃，淚出，衄衄，項背腰尻腠腧脚皆痛，小指不用。”(『靈樞·經脈』)， “是主氣所生病者，汗出，目銳皆痛，頰痛，耳後肩臑肘臂外皆痛，小指次指不用。”(『靈樞·經脈』)， “是主骨所生病者，頭痛，頰痛，目銳皆痛，缺盆中腫痛，腋中腫，馬刀俠瘦，汗出振寒，癢，胸脅肋脾膝外至脛絕骨外踝前及諸節皆痛，小指次指不用。”(『靈樞·經脈』)， “膀胱足太陽之脈，起於目內眥，上額，交頰。”(『靈樞·經脈』)， “手少陰之別，名曰通里，去腕一寸半，別而上行，循經入於心中，繫舌本，屬目系。”(『靈樞·經脈』)， “其直者，上循肝，結于缺，其支者，結于外輔骨，合少陽，其直者，上循伏兔，上結于脾，聚于陰器，上腹而布，至缺盆而結，上頰，上挾口，合于頰，下結于鼻，上合于太陽，太陽爲目上綱，陽明爲目下綱。”(『靈樞·經脈』)， “本支者，上曲牙，循耳前，屬目外眥，上頰，結于角，其痛當所過者支轉筋。”(『靈樞·經脈』)， “陽急則反折，陰急則俛不伸。焯刺者，刺寒急也，熱則筋縱不收，無用燻鍼，名曰季冬痺也。足之陽明，手之

## 5) 눈과 精·氣·津·液·血

眼睛의 光明照澈하는 것은 精氣神의 역할이므로 『내경』에서 “目이란 五臟六腑의 精이다”(『靈樞·大惑論』<sup>73)</sup>고 하였고, 또 “五臟六腑의 精이 모두 目으로 上注하고 오장육부와 12경맥과 365락맥이 血氣을 脾土에서 받아 目으로 上貫하기 때문에 光明한다.”(『靈樞·邪氣藏府病形』<sup>74)</sup>고 하였다.

五臟六腑의 精이 모두 目으로 上注하여 目精이 된다. “精의 窠는 眼이 되고 骨의 精은 瞳子가 되고 筋의 精은 黑眼이 되고 血의 精은 絡이 되고, 그 窠氣의 精은 白眼이 되고 근육의 精은 約束이 되어 근골 氣血의 精을 裏攝하여서 脈系와 함께

太陽，筋急則口目爲喎，眥急不能卒視，治皆如右方也。”(『靈樞·經筋』)， “手少陰之筋……其支者，上曲牙，循耳前，屬目外眥，上乘頰，結於角。”(『靈樞·經筋』)， “手太陽之筋……其支者，入耳中，直者，出耳上，下結於頰，上屬目外眥。”(『靈樞·經筋』)， “足陽明之正，上至脾……上循咽出於口，上頰頰，還繫目系，合於陽明也。”(『靈樞·經別』)， “從脾注心中，循手少陰出腋下臂，注小指，合手太陽，上行乘腋出頰內，注目內眥，上顛下項，合足太陽，循脊下尻，下行注小指之端，循足心注足少陰，上行注腎。”(『靈樞·營氣』)， “視其色，察其目，以知其散復者，視其目色，以知病之存亡也。”(『靈樞·四時氣』)， “熱病頭痛，頰頰，目系，脈痛，善衄，厥熱病也，取之以第三鍼，視有餘不足，寒熱痔。”(『靈樞·熱病』)， “黃帝曰 庭者，首面也，闕上者，咽喉也，闕中者，肺也，下極者，心也，直下者，肝也，肝左者，膽也，下者，脾也，方上者，胃也，中央者，大腸也，挾大腸者，腎也，當腎者，臍也，面王以上者，小腸也，面王以下者，膀胱子處也，顴者，肩也，顴後者，臂也，臂下者，手也，目內眥上者，膺乳也，挾繩而上者，背也，循牙車以下者，股也，中央者，膝也，膝以下者，脛也，當脛以下者，足也，巨分者，股裏也，巨屈者，膝腋也。”(『靈樞·五色』)， “手少陽之本，在小指次指之間上二寸，標在耳後上角下外眥也。”(『靈樞·衛氣』)， “足太陽之本，在跟以上五寸中，標在兩絡命門，命門者，目也。”(『靈樞·衛氣』)， “是故平旦陰盡，陽氣出於目，目張則氣上行於頭，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指之端，其散者，別於目銳眥，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其散者，別於目銳眥，下足少陽，注小指次指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靈樞·衛氣』)， “蹻脈從足至目，七尺五寸，二七一寸四尺，二五一尺，合一丈五尺。”(『靈樞·脈度』)

73) “目者，五臟六腑之精也，營衛魂魄之所常營也，神氣之所生也，故神勞則魂魄散，志意亂”

74) “十二經脈，三百六十五絡，其血氣皆上於面而走空竅，其精陽氣上走於目而爲睛，其別氣走於耳而爲聽”

위로 올라가 腦에 連하고 背側項中으로 나온다.”(『靈樞·大惑論』)75).

눈과 氣血 관계에 있어 “고대의 聖人들은 陰陽을 다스림으로써 筋脈이 조화되고 骨髓가 견고하며 氣와 血의 흐름이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가 조화를 이루면 邪氣가 侵襲할 수 없으며, 귀와 눈이 밝고, 氣機 역시 항상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습니다.”(『素問·生氣通天論』)76)、“노인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어떤 기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젊고 건강한 사람은 낮에 잠을 자지 않는데 어떤 기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기백이 답하길 건강한 사람은 기혈이 왕성하고 그 기육이 매끄럽고 氣道가 통하고 營衛의 흐름이 정상적인 까닭에 낮에는 머리가 맑고 밤에는 잠을 자게 됩니다. 노인은 기혈이 쇠약해서 기육이 마르고 氣道가 걸끄럽고 오장의 기가 조화롭지 못하여 그 營氣가 쇠약해지고 衛氣는 안을 공격하는 까닭에 낮에는 머리가 맑지 못하고 밤에는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靈樞·營衛生會』)77)고 하여 눈의 시력유지를 위해서는 氣血의 정상적인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눈과 津液과의 관계를 “水穀이 입으로 들어가 腸胃에 전달되면 그 液이 나누어 다섯이 된다. 날씨가 추운데 옷을 얇게 입으면 소변과 氣가 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껍게 입으면 땀이 되며, 슬픔에 치우치면 눈물이 되고, 속이 덥고 胃가 느슨해지면 침이 된다.”(『靈樞·五藏津液別』)78)、“五藏

은 液을 변화시키는데, 心은 汗、肺는 涕、肝은 淚、脾는 涎、腎은 唾로 변화되는데 이것이 五液이다.”(『素問·宣明五氣』)79)라 하여 수곡을 통하여 만들어진 진액이 눈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腎精에서 化生되는 髓도 “髓海가 有餘하면 몸이 가볍고 튼튼해지고 힘도 세어지지만, 지나친 성생활로 인하여 髓海가 부족해지면 腦가 흔들리고 耳鳴이 생기며 다리가 저리고 眩暈해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게을러지고 잘 늦게 된다.”80)(『靈樞·海論』)라 하여 시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내경』에는 눈과 精、氣、津、液、血과의 관계를 설명한 18개 조문이 기재되어 있다81).

79) “五藏化液。心爲汗，肺爲涕，肝爲淚，脾爲涎，腎爲唾，是謂五液。”

80)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暈，目無所見，懈怠安臥。”

81) “年五十，體重，耳目不聰明矣。”(『素問·陰陽應象大論』)

“年六十，陰痿，氣大衰，九竅不利，下虛上實，涕泣俱出矣。”(『素問·陰陽應象大論』)

“諸脈者，皆屬於目，諸髓者，皆屬於腦，諸筋者，皆屬於節，諸血者，皆屬於心，諸氣者，皆屬於肺，此四肢八絡之朝夕也。故人臥血歸於肝，肝受血而能視，足受血而能步，掌受血而能握，指受血而能攝。”(『素問·五藏生成篇』)

“五藏化液。心爲汗，肺爲涕，肝爲淚，脾爲涎，腎爲唾，是謂五液。”(『素問·宣明五氣』)

“凡刺之道，氣調而止，補陰寫陽，音氣益彰，耳目聰明，反此者，血氣不行。”(『靈樞·終始』)

“黃帝曰 老人之不夜瞑者，何氣使然？少壯之人，不晝瞑者，何氣使然？岐伯答曰 壯者之氣血盛，其肌肉滑，氣道通，營衛之行，不失其常，故晝精而夜瞑，老者之氣血衰，其肌肉枯，氣道澀，五藏之氣相搏，其營氣衰少而衛氣內伐，故晝不精，夜不瞑。”(『靈樞·營衛生會』)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暈，目無所見，懈怠安臥。”(『靈樞·海論』)

“黃帝問于岐伯曰 水穀入于口，輸于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靈樞·五藏津液別』)

“故五藏六府之津液，盡上滲于目，心悲哀并則心息急，心息急則肺舉，肺舉則液上溢。”(『靈樞·五藏津液別』)

“五十歲，肝氣始衰，肝葉始薄，膽汁始減，目始不明。”(『靈樞·天年』)

“黃帝問於岐伯曰 願聞衛氣之行，出入之合，何如？……

75) “岐伯對曰 五藏六府之精氣，皆上注於目而爲之精。精之窠爲眼，骨之精爲瞳子，筋之精爲黑眼，血之精爲絡，其窠氣之精爲白眼，肌肉之精爲約束，裹損筋骨血氣之精而與脈并爲系，上屬於腦，後出於項中。”

76) “是以聖人陳陰陽，筋脈而同，骨髓堅固，氣血皆從。如是則內外調和，邪不能害，耳目聰明，氣立如故。”

77) “黃帝曰 老人之不夜瞑者，何氣使然？少壯之人，不晝瞑者，何氣使然？岐伯答曰 壯者之氣血盛，其肌肉滑，氣道通，營衛之行，不失其常，故晝精而夜瞑，老者之氣血衰，其肌肉枯，氣道澀，五藏之氣相搏，其營氣衰少而衛氣內伐，故晝不精，夜不瞑。”

78) “水穀入于口，輸于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

## 6) 기타

『내경』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론적 내용 외에도 눈의 해부학적 구조, 눈물의 생성과 역할,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요소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 때문에 嗜慾이 그 눈을 피로하게 하지 않고, 淫邪가心を 현혹시키지 않게 하고, 어리석음이 지혜롭고 어진 것을 없애지 못하게 하고 사물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 道에 합한다.”<sup>82)</sup>(『素問·上古天真論』)라 하여 嗜慾은 눈을 피로하게 함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養生과 視力과의 관계에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살피고 어리석은 사람은 병이 나서야 살핀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不足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有餘하게 된다. 정기가 有餘하면 귀와 눈이 밝고 신체가 가볍고 튼튼해져서 늙은 사

其至於足也，入足心，出內踝下，行陰分，復合於目，故爲一週。”(『靈樞·衛氣行』)

“是故夜行一捨，人氣行於陰藏一週與十分藏之八，亦如陽行之二十五週，而復合於目。”(『靈樞·衛氣行』)

“是故平旦陰盡，陽氣出於目，目張則氣上行於頭，循項下足太陽，循背下至小趾之端，其散者，別於目銳眦，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其散者，別於目銳眦，下足少陽，注小趾次趾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其散者，從耳下下手陽明，入大指之間，入掌中，其至於足也，入足心，出內踝，下行陰分，復合於目，故爲一周。”(『靈樞·衛氣行』)

“其始入於陰，當從足少陰注於腎，腎注於心，心注於肺，肺注於肝，肝注於脾，脾復注於腎爲周。是故夜行一舍，人氣行於陰藏一周與十分藏之八，亦如陽行之二十五週，而復合於目。”(『靈樞·衛氣行』)

“營氣之道，內穀爲寶……從脾注心中，循手少陰，出腋，下臂，注小指，合手太陽，上行乘腋，出頰內，注目內眦，上巔，下項，合足太陽，循脊，下尻，下行注小趾之端，循足心，注足少陰，上行注腎，從腎注心，外散於胸中。”(『靈樞·營氣』)

“衛氣不得入於陰，常留於陽，留於陽則陽氣滿，陽氣滿則陽蹠盛，不得入於陰則陰氣虛，故目不瞑矣。”(『靈樞·大惑論』)

“衛氣留於陰，不得行於陽，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蹠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故目閉也。”(『靈樞·大惑論』)

“胃氣上注於肺，其悍氣上衝頭者，循咽，上走空竅，循眼系，入絡腦，出頰，下客主人，循牙車，合陽明，并下人迎，此胃氣別走於陽明者也。”(『靈樞·動輸』)

82) “是以嗜慾不能勞其目，淫邪不能惑其心，愚智賢不肖，不懼於物，故合於道。”

람도 다시 젊어지고 젊은 사람은 더욱 건강해진 다.”<sup>83)</sup>(『素問·陰陽應象大論』)라 하여 양생방법에 대하여 잘 아는 것이 시력을 오래 유지하는 비결 이라고 하였다.

『素問·解精微論』에서는 “눈물과 콧물은 腦이다. 腦라는 것은 陰이다. 髓는 骨이 충만한 것이므로 뇌가 스며 나와 콧물이 된다. 志는 骨이 주관한다. 때문에 水가 흐를 때 콧물이 그것을 따라 나오는 것은 비슷한 것끼리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대개 콧물과 눈물은 사람에게 있어서 형제에 비유되어 죽으면 함께 죽고, 살면 함께 산다. 때문에 마음이 슬플 때 콧물과 눈물이 함께 나오는 것이다. 대개 눈물과 콧물이 함께 나오는 것은 눈물과 콧물이 속한 류가 같기 때문이다. 雷公이 말하길 대단하십니다! 사람이 우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적게 나오고 콧물이 함께 나오지 않는 이유를 여쭙고 싶습니다. 황제가 말하기를 눈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울기는 하지만 슬프지 않은 것이다.”<sup>84)</sup> “水穀이 입으로 들어가 腸胃에 전달되면 그 液이 나뉘어 다섯이 된다. 날씨가 추운데 옷을 얇게 입으면 소변과 氣가 되고, 날씨가 더운데 옷을 두껍게 입으면 땀이 되며, 슬픔에 치우치면 눈물이 되고, 속이 덥고 胃가 느슨해지면 침이 된다.”<sup>85)</sup>고 하여 눈물의 분비와 감정과의 관계 및 콧물과 눈물의 관계 그리고 눈물의 생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논술했었다.

또한 “이 때문에 물체를 볼 때 높은 곳과 먼 곳의 물체는 작게 보이고 아래쪽과 가까운 곳의 물체는 크게 보이는 것이다.”(『素問·氣交變大論』)<sup>86)</sup>라 하여 사물의 大小와 거리의 遠近에 대해

83) “智者察同，愚者察異，愚者不足，智者有餘，有餘則耳目聰明，身體輕強，老者復壯，壯者益治。”

84) “泣涕者腦也，腦者陰也，髓者，骨之充也，故腦滲爲涕，志者，骨之主也，是以水流而涕從之者，其行類也，夫涕之與泣者，譬如人之兄弟，急則俱死，生則俱生，其志以早悲，是以涕泣俱出而橫行也，夫人涕泣俱出而相從者，所屬之類也。”

85) “水穀入于口，輸于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

서도 서로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눈은 만물을 보고 흑백을 구분하고 길고 짧은 것을 살핀다.”(『素問·脈要精微論』)<sup>87)</sup>、“目能辨五色矣”(『靈樞·脈度』)라 하여 눈에는 소위 흑백을 구별하고 물체의 모양을 감지하며 오색을 분별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그 神을 바로잡는 다는 것은 환자의 눈을 쳐다봄으로써 환자의 神을 제어하여 기가 쉽게 흘러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素問·鍼解』)<sup>88)</sup>라 하여 안과질환과는 관련이 없지만 환자의 눈을 노려보아 환자의 神을 제압하여 침구치료에 있어서 기가 쉽게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내경』에는 눈의 생리와 관련한 기타 25개 조문이 기재되어 있다<sup>89)</sup>.

- 86) “是以象之見也，高而遠則小，下而近則大”
- 87) “夫精明者，所以視萬物，別白黑，審短長”
- 88) “必正其神者，慾瞻病人目製其神，令氣易行也。”
- 89) “是以嗜慾不能勞其目，淫邪不能惑其心，愚智賢不肖，不懼於物，故合於道。”(『素問·上古天真論』)  
 “陽氣者，煩勞則張，精絕辟積，於夏使人煎厥，目言不可以視，耳閉不可以聽，潰潰乎若壞都，汨汨乎不可止。”(『素問·生氣通天論』)  
 “智者察同，愚者察異，愚者不足，智者有餘，有餘則耳目聰明，身體輕強，老者復壯，壯者益治。”(『素問·陰陽應象大論』)  
 “能經天地陰陽之化者，不失四時，知十二節之理者，聖智不能欺也，能存八動之變，五勝更立，能達虛實之數者，獨出獨入，呿吟至微，秋毫在目。”(『素問·寶命全形論』)  
 “岐伯曰 請言形，形乎形，目冥冥，問其所病，索之於經，慧然在前，按之不得，不知其情，故曰形。”(『素問·八正神明論』)  
 “岐伯曰 請言神，神乎神，耳不聞，目不明，而志先，慧然獨悟，口弗能言，俱視獨見，適若昏，昭然獨明，若風吹雲，故曰神。”(『素問·八正神明論』)  
 “帝捧手逡巡而卻曰 夫子之開竅道也，目未見其處，耳未聞其數，而目以明，耳以矣。”(『素問·氣穴論』)  
 “是以象之見也，高而遠則小，下而近則大，故大則喜怒遷，小則禍福速。”(『素問·氣交變大論』)  
 “黃帝燕坐，召雷公而問之曰 汝受術誦書者，若能覽觀雜學，及於比類，適合道理，爲餘言子所長，五藏六府，膾胃大小腸脾胞膀胱，髓腦涕唾，哭泣悲哀，水所從行，此皆人之所生，治之過失，子務明之，可以十全，卽不能知，爲世所怨。”(『素問·示從容論』)  
 “復問 不知水所從生，涕所從出也。帝曰 若問此者，無

## 2. 눈의 병리

### 1) 운기적인 병변

운기 병변은 『내경』의 안과질환의 원인 중 외인에 해당되는 것이다. 외인에서는 風邪와 熱邪를 주로 논술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풍사가 양명경

益於治也，工之所知，道之所生也。夫心者，五藏之專精也，目者其竅也，華色者其榮也，是以人有德也，則氣和於目，有亡，憂知於色。”(『素問·解精微論』)  
 “夫水之精爲志，火之精爲神，水火相感，神志俱悲，是以目之水生也，故諺言曰 心悲名曰志悲，志與心精，共湊於目也。”(『素問·解精微論』)  
 “雷公曰 大矣！請問人哭泣而淚不出者，若出而少，涕不從之何也？”(『素問·解精微論』)  
 “帝曰 夫泣不出者，哭不悲也。”(『素問·解精微論』)  
 “不泣者，神不慈也，神不慈則志不悲，陰陽相持，泣安能獨來？夫志悲者悅，悅則衝陰，衝陰則志去目，志去則神不守精，精神去目，涕泣出也。且子獨不誦不念夫經言乎？厥則目無所見。”(『素問·解精微論』)  
 “夫一水不勝五火，故目昏盲，是以衝風，泣下而不止。”(『素問·解精微論』)  
 “夫風之中目也，陽氣內守於精，是火氣燔目，故見風則泣下也。”(『素問·解精微論』)  
 “是動則病噎痛，卻腫，不可以顧，肩似拔，腦似折，是主液所生病者，耳聾目黃頰腫頰頰肩膊肘臂外後廉痛。”(『靈樞·經脈』)  
 “黃帝曰 老人之不夜瞑者，何氣使然？少壯之人，不晝瞑者，何氣使然？岐伯答曰 壯者之氣血盛，其肌肉滑，氣道通，營衛之行，不失其常，故晝精而夜瞑，老者之氣血衰，其肌肉枯，氣道澀，五藏之氣相搏，其營氣衰少而衛氣內伐，故晝不精，夜不瞑。”(『靈樞·營衛生會』)  
 “黃帝曰 人之哀而泣涕出者，何氣使然？”(『靈樞·口問』)  
 “五經津液別 第三十六 黃帝問于岐伯曰 水穀入于口，輸于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靈樞·五經津液別』)  
 “水穀入於口，輸於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靈樞·五經津液別』)  
 “黃帝問于岐伯曰 水穀入于口，輸于腸胃，其液別爲五，天寒衣薄則爲溺與氣，天熱衣厚則爲汗，悲哀氣并則爲泣，中熱胃緩則爲唾。”(『靈樞·五經津液別』)  
 “黃帝曰 明目者，可使視色。”(『靈樞·官能』)  
 “目眦外決於面者，爲銳眦，在內鼻者，爲內眦，上爲外眦，下爲內眦。”(『靈樞·癩狂』)  
 “夫怯士之不忍痛者，見難與痛，目轉面盼，恐不能言，失氣，驚，顏色變化，乍死乍生。”(『靈樞·論勇』)

을 타고 胃로 들어가서 다시 경맥을 따라 目內眥에 까지 올라가는데, 살진 사람은 풍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여 熱中하게 되어 目黃이 되고 마른 사람은 풍기가 外泄되므로 차게 되어 寒中하고 눈물이 나게 된다.”(『素問·風論』<sup>90</sup>)、 “傷于風者，上先受之”(『素問·太陰陽明篇』)、 “暴熱而之，赤風腫翳”(『素問·本病論』) 등이 있다. 風熱邪는 안과 질환에서 상견되는 병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임상적 의의가 있다.

먼저 육음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풍기가 풍부를 따라 올라가면 뇌풍이 되고, 풍이 들어와 머리에 이어지면 목풍이 되고 눈이 한냉하여 집니다.”(『素問·風論』<sup>91</sup>)와 같이 風邪는 경락을 따라 눈에 영향을 미쳐서 시력감퇴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로풍은 항상 폐 아래에 있으며, 그 병됨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상하게, 신체의 상부인 머리와 목 등을 강직하게 하고 보는 것을 어렵게 하며, 침이 나오는 것이 체와 같고, 바람을 싫어하고 추위에 떠니, 이것이 로풍의 병이 됩니다.”(『素問·評熱病論』<sup>92</sup>)、 『素問·解精微論』<sup>93</sup>)、 『素問·解精微論』<sup>94</sup>)、 『靈樞·論疾診尺』<sup>95</sup>)와 같이 風에 의하여 유발되는 上氣 증상이 심해지면 눈이 흐려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풍비증이 날을 따라 심해져 고칠 수 없는 자는 발이 얼음을 밟는 것 같고 때로는 끓는 물 속에 넣은 것 같으며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저리고 아프며 무력하며 변심과 두통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며 어지럽다가 땀이 나는데 이것이

90) “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眥，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人瘦則外泄而寒，則爲寒中而泣出。”

91) “風氣循風府而上，則爲腦風，風入系頭，則爲目風，眼寒。”

92) “勞風法在肺下，其爲病也，使人強上冥視，唾出若涕，惡風而振寒，此爲勞風之病。”

93) “是以氣衝風，泣下而不止，失風之中目也，陽氣內守於精，是火氣燭目，故見風則泣下也。”

94) “夫風之中目也，陽氣內守於精，是火氣燭目，故見風則泣下也。”

95) “視人之目窠上微癢，如新臥起狀，其頸脈動，時欬，按其手足上，窅而不起者，風水膚脹也。”

오래되면 목현이 생기고 슬퍼했다 기뻐했다 두려워했다 하고 숨이 바쁘고 즐거워하는 기색이 없으면 3년이 못되어 죽습니다.”(『靈樞·厥病』<sup>96</sup>)와 같이 風에 의하여 유발되는 風痺가 심하여 기혈 순환의 장애가 심할 경우 시력장애 도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답이 열을 뇌로 옮기면, 콧날이 매워 정하게 하고 비연하는데, 비연이라는 것은 흐린 콧물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진하여 녹말, 명목합니다.” 『素問·氣厥論』<sup>97</sup>)와 같이 熱邪에 이해서도 안과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素問·六元正紀大論』<sup>98</sup>)、 『素問·至真要大論』<sup>99</sup>)、 『靈樞·熱病』<sup>100</sup>101)102))、 “民病寒熱痞泄，聾瞑嘔吐，上怫腫色變。”(『素問·六元正紀大論』)와 같이 寒에 의해서도 안과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素問·六元正紀大論』<sup>103</sup>)、 『素問·至真要大論』<sup>104</sup>)、

96) “風痺淫滲，病不可已者，足如履冰，時如入湯中，股脛淫滲，煩心頭痛，時嘔時恍，眩已汗出，久則目眩，悲以喜怒，短氣，不樂，不出三年死也。”

97) “膽移熱於腦，則辛頰鼻淵，鼻淵者，濁涕下不止也，傳爲衄血，瞑目。”

98) “岐伯曰 不遠熱則熱至，不遠寒則寒至，寒至則堅否腹滿，痛急下利之病生矣，熱至則身熱，吐下霍亂，癰疽瘡瘍，疔鬱注下，悶癰腫脹，嘔，衄血，頭痛，骨節變，肉痛，血溢血泄，淋瀝之病生矣。”

99) “少陽之勝，熱客於胃，煩心，心痛，目赤，慾嘔，嘔酸，善飢，耳痛，溺赤，善驚，譫妄，暴熱消燄，草萎水涸，介蟲乃屈。”

100) “熱病啗乾多飲，善驚，臥不能起，取之膚肉，以第六鍼，五十九，目眇青，索肉于脾，不得索之木，木者肝也，熱病面青腦痛，手足躁，取之筋間，以第四鍼，于四逆，筋蹙目浸，索筋于肝，不得索之金，金者肺也。”

101) “熱病身重骨痛，耳聾而好瞑，取之骨，以第四鍼，五十九刺，骨病不食，齧齒耳青，索骨于腎，不得索之士，土者脾也。”

102) “熱病不可刺者有九，一曰，汗不出，大顛發赤噉者死，二曰，泄而腹滿甚者死，三曰，目不明，熱不已者死，四曰，老人嬰兒，熱而腹滿者死，五曰，汗不出，嘔下血者死，六曰，舌本爛，熱不已者死，七曰，欬而衄，汗不出，出不至足者死，八曰，髓熱者死，九曰，熱而極者死。”

103) “民病寒中，外發瘡瘍，內爲泄滿，故聖人遇之，和而不爭，往復之作，民病寒熱痞泄，聾瞑嘔吐，上怫腫色變。”

운기 병변과 관련하여 “세운 목이 태과하면 풍기가 유행하여 비토가 사기를 받으니, 사람은 손설, 식감, 체중, 번원, 장명, 복지만 등을 앓고, 상으로는 세성에 응하는데, 심하면 갑자기 잘 못하고 현모하고 진질을 앓습니다.”(『素問·氣交變大論』<sup>105</sup>)와 같이 각 운의 태과 불급 및 율결에 따라 안과질환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있고(『素問·五常政大論』<sup>106</sup><sup>107</sup>、『素問·氣交變大論』<sup>108</sup><sup>109</sup><sup>110</sup>), “양명이 사천하면 조기가 하지에 임하고 간목기가 위를 좇아 창이 일어나며 목이 작용하면서 확립하니 토가 이에 재앙을 입고, 차가움이 자주 이르러 나무가 꺾이고 풀이 시들며, 협통, 목적한다.”(『素問·五常政大論』<sup>111</sup>、『素問·六元正紀大論』<sup>112</sup><sup>113</sup>)과 같이 사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과

병변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있으며(『素問·五常政大論』<sup>114</sup>、『素問·六元正紀大論』<sup>115</sup><sup>116</sup>、『素問·至眞要大論』<sup>117</sup><sup>118</sup><sup>119</sup><sup>120</sup><sup>121</sup><sup>122</sup><sup>123</sup><sup>124</sup><sup>125</sup>), “세에 소음이 재천하여 열음이 승하면, 뜨거운 열기가 천택에 피어오르고 그늘져 어두운 곳이 도리어 밝아지면; 사람의 병은, 복증이 항상 명하고 기가 상으로 흠을 치받으며, 천하여 능히 오래 서지 못하고, 오한 발열하며 피부가 통하고, 목이 명하며, 치가 통하고, 눈 아래 부위가 붓고 오한, 발열이

- 104) “太陽之勝，凝滯且至，非時水冰，羽乃後化，痔瘡發，寒厥入胃則內生心痛，陰中乃癆，隱曲不利，互引陰股，筋肉拘苛，血脈凝泣，絡滿色變，或爲血泄，皮膚否腫，腹滿食減，熱反上行，頭項凶頂腦戶中痛，目如脫，寒入下焦，傳爲濡瀉。”
- 105) “歲木太過，風氣流行，脾土受邪，民病飧泄，食減體重，煩冤，腸鳴，腹支滿，上應歲星，甚則忽忽善怒，眩冒崩疾。”
- 106) “發生之紀，是謂啓數(古陳字)……其化生，其氣美，其政散，其令條舒，其動掉眩痲疾。”
- 107) “赫曦之氣，是爲蕃茂……其病笑疔，瘡瘍血流，狂妄目赤。”
- 108) “歲金太過，燥氣流行，肝木受邪，民病兩脇下，少腹痛，目赤痛，背癆，耳無所聞。”
- 109) “歲火不及，寒乃大行，長政不用，物榮而下，凝慘而甚，則陽氣不化，乃折榮美，上應辰星，民病胸中痛，脇支滿，兩脇痛，膺背肩胛間及兩臂內痛，鬱冒膝味，心痛暴痛，胸腹大，脇下與腰背相引而痛，甚則屈不能伸，體痺如別。”
- 110) “歲水不及，濕乃大行……復則大風暴發，草偃木零，生長不鮮，面色時變，筋骨併辟，肉閼瘵，目視眩暈，物疏澀，肌肉疹發，氣并膈中，痛於心腹。”
- 111) “陽明司天，燥氣下臨，肝氣上從，蒼起木用而立，土乃眚，淒滄數至，木伐草萎，腦痛目赤。”
- 112) “木鬱之發……故民病胃脘當心而痛，上支兩脇，膈咽不通，食飲不下，甚則耳鳴眩轉，目不識人，善暴僂仆。”
- 113) “火鬱之發……故民病少氣，瘡瘍腫腫，脇腹胸背，面首四支，頰脹，腸癆，嘔逆，癢癢骨痛，節酒有動，注下溫痞，腹中暴痛，血溢流注，精液澆少，目赤心熱，甚則昏悶，善暴死。”

- 114) “厥陰司天，風氣下臨，脾氣上從，而土且隆，黃起，水乃眚，土用革，體重，肌肉痿，食減口爽，風行太虛，雲物搖動，目轉耳鳴。”
- 115) “太陽，太角，太陰，壬辰，壬戌，其運風，其化鳴素啓拆，其變振拉摧發，其病眩掉目暝。”
- 116) “少陽，太角，厥陰，壬寅(同天符)，壬申(同天符)，其運風鼓，其化鳴素啓拆，其變振拉摧發，其病掉眩，支脇，驚駭。”
- 117) “太陰司天，濕淫所勝，則沈陰且布，雨變枯槁，附腫骨痛，陰痺，陰痺者，按之不得，腰脊頭項痛，時眩，大便難。”
- 118) “陽明司天，燥淫所勝……民病左脇脇痛，寒清于中，感而痛，大涼革候，咳，腹中鳴，注泄驚瀉，名木斂生，莖于下，草焦上首，心脇暴痛，不可反側，噎乾面塵腰痛，丈夫癩疔，婦人少腹痛，目昧眚，瘡瘍瘰癧……病本在肝。”
- 119) “太陽司天，寒淫所勝……民病厥心痛，嘔血，血泄，衄血，善悲，時眩仆……胸腹滿，手熱肘攣，掖腫，心澹澹大動，胸脇胃脘不安，面赤目黃，善噫乾，甚則色衰，渴而欲飲，病本於心。”
- 120) “少陰司天，客勝則肺咳，頸項強，肩背脊熱，頭痛，少氣，發熱，耳聾，目暝，甚則附腫，血溢，瘡瘍，咳嗽，主勝則心熱煩躁，甚則脇痛支滿。”
- 121) “厥陰司天，客勝則耳鳴掉眩，甚則咳，主勝則胸脇痛，舌難以言。”
- 122) “太陽之復……心胃生寒，胸膈不利，心痛否滿，頭痛善悲，時眩仆，食減。”
- 123) “太陽之勝……痔瘡發，寒厥入胃則內生心痛，陰中乃癆，隱曲不利，互引陰股，筋肉拘苛，血脈凝泣，絡滿色變，或爲血泄，皮膚否腫，腹滿食減，熱反上行，頭項顛頂腦戶中痛，目如脫，寒入下焦，傳爲濡瀉。”
- 124) “少陽之勝，熱客於胃，煩心，心痛，目赤，欲嘔，嘔酸，善飢，耳痛，溺赤，善驚，瀉妄，暴熱消燄。”
- 125) “少陽之復，大熱將至，枯燥燔赫，介蟲乃耗，驚恐欬衄，心熱煩燥，便數憎風，厥氣上行，面如浮埃，目乃瞤，火氣內發，上爲口糜，嘔逆，血溢血泄，發而爲疔，惡寒鼓慄，寒極反熱，噎絡焦槁，渴引水漿，色變黃赤，少氣脈萎，化而爲水，傳爲附腫，甚則入肺，欬而血泄，尺澤絕，死不治。”

학질과 같습니다.”(『素問·至眞要大論』<sup>126</sup>)와 같이 재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과 병변에 관하여 언급한 것도 있으며(『素問·至眞要大論』<sup>127</sup>), “이러한 까닭에 巳年과 亥年에 군화가 사천의 조간으로 오르려함에 …… 백성들은 양기가 잠복되어 속에서 변열이 생기고 심신이 놀라 두근거리며 한열이 간간히 발작합니다. 오랫동안 화기가 상승하지 못하여 울결하면 폭열이 눈에 이르러 목적과 증통하고 翳膜이 생깁니다.”(『素問·本病論』<sup>128</sup>)와 같이 객기의 時令 교체시기 문제로 야기되는 안과질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素問·六元正紀大論』<sup>129</sup>、『素問·本病論』<sup>130</sup><sup>131</sup><sup>132</sup><sup>133</sup><sup>134</sup><sup>135</sup><sup>136</sup>、『素問·刺法論』<sup>137</sup>), 또한 “무릇 이 해의

소양사천 정령은 …… 初之氣는 地氣가 遷移하여 자리를 물러나면 풍이 승하여 이에 유동하고, 한이 이에 물러가고 기후가 이에 大溫하여 초목이 일찍 번영하고, 비록 한이 온다 하더라도 殺하지 못하며 溫病이 이에 일어나며, 그 병은 기가 상에서 불올하고 혈일, 목적, 해역, 두통, 혈붕, 협만하고 …… 三之氣에는 천정이 펼쳐짐에 염서가 이르고 소양이 상에 임하니, 우가 이에 다하여 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병은 열증, 통명, 혈일, 농창, 해, 구, 구늬, 갈, 체흡, 후비, 목적하며 갑작스레 잘 죽습니다.”(『素問·六元正紀大論』<sup>138</sup>)와 같이 주기와 객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도 안과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素問·六元正紀大論篇』<sup>139</sup><sup>140</sup>、『素問·刺法論』<sup>141</sup>). 그밖에 “또한 후 丙申이나 丙寅년이 되어 水運이 太過하여 운이 교체되는 날자에 앞서서 이르고 君火가 내려가려 할 때 水運이 그것을 내려가지 못하게 하여 運化가 내려가고자 하나 내려가지 못하면 …… 백성들이 面赤、心煩、頭痛、目眩하는 병이 생긴다.”(『素問·刺法論』<sup>142</sup><sup>143</sup>)와 같이 운기 상합

- 126) “歲少陰在泉，熱淫所勝，則焰浮川澤，陰處反明，民病腹中常鳴，氣上衝胸，喘，不能久立，寒熱皮膚痛，目眩齒痛，頰腫，惡寒發熱如癘。”
- 127) “歲太陰在泉，草乃早榮，濕淫所勝 …… 民病飲積，心痛，耳聾，渾渾焯焯，哈腫喉痺，陰病見血，少腹痛腫，不得小便，病衝頭痛，目似脫，項似拔，腰似折，脾不可以回，臏如結，腦如別。”
- 128) “是故巳亥之歲，君火升天 …… 民病伏陽，而內生煩熱，心神驚悸，寒熱間作，日久成鬱，即暴熱迺至，赤風腫翳。”
- 129) “初之氣，地氣遷，陰始凝，氣始肅，水乃冰，寒兩化，其病中熱脹，面目浮腫，善眠，肌噤缺嘔，小便黃赤，甚則淋。”
- 130) “是故丑未之年，少陽升天 …… 民病伏陽在內，煩熱生中，心神驚駭，寒熱間爭，以成久鬱，即暴熱迺生，赤風氣腫翳，化成鬱癘，迺化作伏熱內煩，痺而生厥，甚則血溢。”
- 131) “是故寅申之歲，少陽降地 …… 久而不降，伏之化鬱，寒勝復熱，赤風化疫，民病面赤心煩，頭痛目眩也，赤氣彰而溫病欲作也。”
- 132) “是故卯酉之歲，太陰降地 …… 久而不降也，伏之化鬱，天埃黃氣，地布濕蒸，民病四肢不舉，昏眩肢節痛，腹滿填臄。”
- 133) “是故辰戌之歲，少陽降地 …… 久而不降，伏之化鬱，冷氣復熱，赤風化疫，民病面赤心煩，頭痛目眩也，赤氣彰而熱病欲作也。”
- 134) “是故巳亥之歲，陽明降地 …… 民病掉眩，手足直而不仁，兩脇作痛，滿目眩眩。”
- 135) “厥陰不遷正，即風暝不時，花卉萎瘁，民病淋瀝，轉筋，喜怒，小便赤。”
- 136) “陽明不退位，即春生清冷，草本晚榮，寒熱間作，民病嘔吐暴注，食飲不下，大便乾燥，四肢不舉，目眩掉眩。”

- 137) “厥陰不退位，即大風早舉，時雨不降，濕令不化，民病溫疫疠癘風生，民病皆肢節痛，頭目痛，伏熱內煩，咽喉乾引飲。”
- 138) “凡此少陽司天之政 …… 初之氣，地氣遷，風勝乃搖，寒乃去，候乃大溫，草木早榮，寒來不殺，溫病乃起，其病氣佛，於上，血溢目赤，咳逆頭痛，血崩，脇滿 …… 三之氣，天政布，炎暑至，少陽隨上，雨乃涯，民病熱中，聾瞶，血溢，膿瘡，咳，嘔，肌衄，渴，噎欠，喉痺，目赤，善暴死。”
- 139) “凡此少陰司天之政 …… 水火寒熱持於氣交，而為病始也，熱病生於上，清病生於下，寒熱凌犯而爭於中，民病咳嗽，血溢泄泄，肌噤目赤，皆瘍 …… 二之氣，陽氣布，風乃行，春氣以正，萬物應榮，寒氣時至，民乃和，其病淋，目瞑目赤，氣鬱於上而熱，三之氣，天政布，大火行，庶類蕃鮮，寒氣時至，民病氣厥心痛，寒熱更作，咳喘目赤。”
- 140) “凡此厥陰司天之政 …… 三之氣，天政布，風乃時舉，民病泣出，耳鳴掉眩。”
- 141) “久而不降，伏之化鬱，冷氣復熱，赤風化疫，民病面赤心煩頭痛目眩也。”
- 142) “又或遇丙申丙寅，水運太過，先天而至，君火欲降，水運承之，降而不下，即形雲霧見，黑氣反生，暄暖如舒，寒常布雪，凜冽復作，天雲慘悽，久而不降，伏之化鬱，寒勝復熱，赤風化疫，民病面赤心煩，頭痛目眩

의 관계로 안과질환의 병기를 설명한 것도 있다.

2) 음양 병변

『내경』에서는 안과 병변을 陽은 上이고 陰은 下라는 관점에서 인식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음양의 위치 관계 이상이나 陽氣의 문제로 인하여 안과질환이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했다(『素問·脈解』<sup>144</sup>). 이외에도 『내경』에서는 안과질환과 음양의 관계에 대하여 “음이라는 것은 정을 저장하여 기극하며, 양이라는 것은 밖을 에워싸서 견고하게 합니다. 만일 음이 양을 이기지 못하면 맥의 흐름이 박절해지고 검병하면 이에 광하게 되고, 양이 그 음을 이기지 못하면 오장의 기가 다투어 불화하여 구구가 통하지 않습니다.”(『素問·生氣通天論』<sup>145</sup>)와 같은 陰陽不和가 九竅不通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결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나니, 대저 사람이 결하면, 양기는 상에 병하고 음기는 하에 병하는데, 양이 상에 병하면 화가 홀로 빛나고, 음이 하에 병하면 죽이 한하는데, 죽이 한하면 창합니다. 대저 일수가 오화 불 승하지 못하니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素問·解精微論』<sup>146</sup>)와 같이 偏盛偏衰가 九竅不通 혹은 안과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素問·著至教論』<sup>147</sup>、『素問·解精微論』<sup>148</sup>、『素問·陰陽類論

也.”

- 143) “是故巳亥之歲，陽明降地，主窒地形，勝而不入，又或遇太陰未退位，即少陽未得降，即火運以至之，火運承之，不下，即天清而肅，赤氣彰，暄熱反作，民皆昏倦，夜臥不安，咽乾引飲，慄熱內煩，大清朝暮，暄還復作，久而不降，伏之化鬱，天清薄寒，遠生白氣，民病掉眩，手足直而不仁，兩脇作痛，滿目眈眈。”
- 144) “久坐起則目眈眈無所見者，萬物陰陽不定未有主也，秋氣始至，微霜始下，而方殺萬物，陰陽內奪，故目眈眈無所見也。”
- 145) “陰者藏精而起亟也，陽者衛外而爲固也，陰不勝其陽，則脈流薄疾，并乃狂，陽不勝其陰，則五臟氣爭，九竅不通。”
- 146) “厥則目無所見，夫人厥則陽氣并於上，陰氣并於下，陽并於上，則火獨光也，陰并於下則足寒，足寒則脹也，夫一水不勝五火，故目昏盲。”
- 147) “三陽者，至陽也，積并則爲驚，病起疾風，至如霹靂，九竅皆塞，陽氣滂溢，乾噎喉塞。”

』<sup>149</sup>)을 설명하였고, “黃帝가 말하기를 눈이 병들어 보지 못하는 것은 어느 氣 때문인가? 岐伯이 말하기를 衛氣가 음에 머무르게 되면 양으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데, 음에 머무르면 陰氣가 盛해지고, 陰氣가 盛해지면 陰蹻脈은 充滿하게 되고 위기가 양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陽氣가 虛해지는 까닭에 눈을 뜨지 못하는 것입니다.”(『靈樞·大惑論』<sup>150</sup>)와 같이 陽盛陰衰、陰盛陽衰가 안과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素問·生氣通天論』<sup>151</sup>152)、『靈樞·口問』<sup>153</sup>)을 설명하였으며, “이른바 邑色하면서 오래 서있거나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면 눈이 캄캄해지면서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만물의 음양이 정해지지 못하여 아직 주장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추기가 처음 이름에, 약간의 서리가 비로소 내리고 마야흐로 만물을 숙살하니, 음양이 안으로 탈되므로 눈이 캄캄해지면서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素問·脈解』<sup>154</sup>)와 같이 陰陽內奪이 안과질환을 유발한다는 내용(『素問·陰陽應象大論』<sup>155</sup>、『素問·鍼解』<sup>156</sup>)을 설명하였다. 또한 “足太陽에는 뒷목을 통하여 뇌로 들어

- 148) “夫風之中目也，陽氣內守於精，是火氣燔目，故見風則泣下也。”
- 149) “二陽一陰，陽明主病，不勝一陰，軟而動，九竅皆沈。”
- 150) “黃帝曰 病目而不得視者，何氣使然？岐伯曰 衛氣留於陰，不得行於陽，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蹻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故目閉也。”
- 151) “陽氣者，煩勞則張，精絕則積，於夏使人煎厥，目盲不可以視，耳閉不可以聽，潰潰乎若壞都，汨汨乎不可止。”
- 152) “陰不勝其陽，則脈流薄疾，并乃狂，陽不勝其陰，則五臟氣爭，九竅不通。”
- 153) “陽氣盡，陰氣盛，則目瞑，陰氣盡而陽氣盛，則寤矣。”
- 154) “所謂色色，不能久立久坐，起則目眈眈無所見者，萬物陰陽不定，未有主也，秋氣始至，微霜始下，而方殺萬物，陰陽內奪，故目眈眈無所見也。”
- 155) “年四十而陰氣自半也，起居衰矣，年五十體重，耳目不聰明矣。”
- 156) “所謂色色不能久立，久坐起則目眈眈無所見者，萬物陰陽不定未有主也，秋氣始至，微霜始下，而方殺萬物，陰陽內奪，故目眈眈無所見也，必正其神者，慾瞻病人目製其神，令氣易行也。”

가는 것이 있어서 눈의 뿌리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데 眼系라고 부른다. 頭目이 고통스러울 때 그것을 취하는데, 뒷목 가운데 두 근육사이에 있으며, 뇌로 들어가 陰蹠脈과 陽蹠脈으로 나뉘어 연결된다. 陰陽이 서로 교차하여 陽은 陰으로 들어가고 陰은 陽으로 나와서 目銳眥에서 서로 교차된다. 陽氣가 盛하면 瞼目이 되고, 陰氣가 盛하면 瞼目이 된다.”(『靈樞·寒熱病』)<sup>157</sup>와 같이 陰陽의 기가 경맥의 흐름과 관련하여 눈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다.

### 3) 장부 병변

『내경』시대에는 아직 안과가 독립적인 분과로 자리를 잡지 못한 시기였으며, 대다수의 많은 서적들에서 안과증상을 臟腑 病變과 함께 내과분야에서 전신질환의 일부분으로 다루던 시기이다. 장부 병변 중에는 간담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기타 장부 역시 눈의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기재하였고, 눈의 상태에 따라 어느 장에 병이 있는지를 언급하기도 하였다(『靈樞·論疾診尺』)<sup>158</sup>).

눈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구구와 오장과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내용으로는 “오장이 조화롭지 못하면 칠구가 통하지 않고, 육부가 조화롭지 못하면 기혈이 머물고 울결되어 웅이 됩니다.”(『靈樞·脈度』)<sup>159</sup>와 같이 오장의 불화가 七竅不通을 유발한다는 내용이 있고, “頭痛、耳鳴、九竅不利는 腸胃에서 생긴 것이다.”(『素問·通評虛實論』)<sup>160</sup>라 하여 장위의 불화가 頭痛耳鳴 및 九竅不利와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눈과 간담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諸風掉眩, 皆屬於肝.”(『素問·至眞要大論』)와 같이 風과 안과질

환이 모두 간과 관계된다고 설명하였고(『素問·藏氣法時論』<sup>161</sup>、『素問·標本病傳論』<sup>162</sup>、『素問·風論』<sup>163</sup>、『素問·四時刺逆從論』<sup>164</sup>), “심흉이 급작스레 통하여 가히 반측하지 못하며, 익진, 면진하고 요통하며, 남자는 퇴산하고 부인은 소복이 통하며, 목매, 자양하고 창양좌옹 등을 앓습니다. …… 병이 간에 근본 합니다.”(『素問·至眞要大論』)<sup>165</sup>와 같이 간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 가운데 눈병이 포함된다고 보았다(『靈樞·熱病』)<sup>166</sup>. “담이 열을 뇌로 옮기면, 콧날이 매워 찡하게 하고 비연하는데, 비연이라는 것은 흐린 콧물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이며 전하여 녹멸、명목 합니다.”(『素問·氣厥論』)<sup>167</sup>이라고 하여 膽熱이 뇌로 들어가 鼻淵 증상과 함께 瞑目 증상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또한 “머리가 심하게 흔들려 매우 어지럽고, 눈앞이 아물거리며, 귀가 어두워지는 등의 증상은 下部는 實하고 上部는 虛하기 때문이며, 足少陽膽經과 足厥陰肝經에 있는 것이고, 심하면 肝으로 전변 됩니다.”(『素問·五藏生成』)<sup>168</sup>이라 하여 上虛 下實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들이 간담경을 통하여 간으로 병이 전변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목병과 간과의 관계가 밀접함을 언급하였다.

눈과 심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기가 심에 있으면 병으로 심통이 있고 자주 슬퍼하며 때로 어지러워 쓰러집니다.”(『靈樞·五邪』)<sup>169</sup>라 하여 심의

161) “肝病者, 兩脇下痛引少腹, 令人善怒. 虛則目眩暈無所見, 耳無所聞, 善恐, 如人將捕之.”

162) “肝病頭目眩脇支滿, 三日體重身痛, 五日而脹, 三日腰脊少腹痛脛痠, 三日不已死.”

163) “肝病之狀, 多汗惡風, 善悲, 色微蒼, 噓乾善怒, 時憎女子, 診在目下, 其色青.”

164) “少陽有餘病筋癱脇滿, 不足病肝痺, 滑則病肝風疝, 澹則病積, 時筋急目痛.”

165) “心脇暴痛, 不可反側, 噓乾, 面塵腰痛, 丈夫癩疽, 婦人少腹痛, 目昧眥, 瘍瘡瘰癧, 蟄蟲來見, 病本于肝.”

166) “熱病面青腦痛, 手足躁, 取之筋間, 以第四鍼, 于四逆, 筋盡目浸, 索筋于肝, 不得索之金, 金者肺也.”

167) “膽移熱於腦, 則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傳爲衄膿, 瞑目.”

168) “衄蒙招尤, 目冥耳聾, 下實上虛, 過在足少陽厥陰, 甚則入肝.”

157) “足太陽有通項入于腦者, 正屬日本, 名曰眼系, 頭目苦痛取之, 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陰蹠、陽蹠, 陰陽相交, 陽入陰, 陰出陽, 交于目銳眥, 陽氣盛則瞼目, 陰氣盛則瞼目.”

158) “目赤色者, 病在心, 白在肺, 青在肝, 黃在脾, 黑在腎.”

159) “五臟不和, 則七竅不通, 六腑不和則留爲癰.”

160) “頭痛耳鳴, 九竅不利, 腸胃之所生也.”

병증에서도 눈의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고(『素問·至真要大論』<sup>170</sup>), 『靈樞·邪氣藏府病形』<sup>171</sup>), “심에는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신에는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갑자기 서로 감축하면 정기가 문란해져서 시각이 그르치게 되므로 흑이 생기는 것인데, 신이 옮겨지면 이에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경한 것은 미라하고 심한 것은 흑이라 합니다.”(『靈樞·大惑論』)<sup>172</sup>라 하여 神이 어지러워지면 헛것을 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슬퍼하거나 근심하면 심이 격동되고, 심이 격동되면 오장육부가 모두 요동되며 오장육부가 요동하면 모든 결맥이 감응되고 액도 열리게 되므로 눈물, 콧물이 나옵니다.”(『靈樞·口問』)<sup>173</sup>와 같이 감정의 장애와 心의 문제에 의하여 泣出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눈과 비위와의 관계에 대하여 “소변이 누런 것은 少腹에 열이 있는 것이고, 바로 누울 수 없는 것은 胃中이 不和한 것이며, 바로 누우면 기침이 심하게 나는 것은 폐를 上迫하기 때문이다. 모든 水氣는 약간 붓는 증상이 먼저 눈 아래에 나타난다.”(『素問·評熱病論』)<sup>174</sup>라 하여 수액대사에 胃가 관여하므로 水病에 微腫先見於目下하는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고, “소양이 승하면, 열이 위에 침범하여 번심, 심통하고, 목적하며, 구하려하고, 구산하면 전기하고, 귀가 아프고, 뇨적하며, 잘 경하고 섬망하며, 폭열이 물을 소삭시킵니다.”(『素問·至真要大論』)<sup>175</sup>라 하여 위에 열사가

침범한 경우에도 目赤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靈樞·熱病』)<sup>176</sup>. 또한 胃의 경락과 관련하여 “풍기가 양명과 더불어 위로 들어오면 맥을 따라 위로 눈 안쪽 모서리에 이르기에, 그 사람이 살찐 사람이면 풍기가 밖으로 외설하지 못하여, 곧 熱中하여 눈이 누렇게 되고 그 사람이 수척하게 마른 사람이면 밖으로 외설하여 한하게 되니 곧 寒中하여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素問·風論』)<sup>177</sup>라 함으로써 의사가 위경에 침입했을 경우 위경이 흐르는 부위에 안과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눈과 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勞風은 항상 폐 아래에 있으며, 그 병됨은 사람으로 하여금 강상하게, 신체의 상부인 머리와 목 등을 강직하게 하고 보는 것을 어둡게 하며, 침이 나오는 것이 체와 같고, 바람을 싫어하고 추위에 떠니, 이것이 로풍의 병이 됩니다.”(『素問·評熱病論』)<sup>178</sup>이라 하여 폐의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上逆의 증상으로 시력장애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소변이 누런 것은 少腹에 열이 있는 것이고, 바로 누울 수 없는 것은 胃中이 不和한 것이며, 바로 누우면 기침이 심하게 나는 것은 폐를 上迫하기 때문이다. 모든 水氣는 약간 붓는 증상이 먼저 눈 아래에 나타난다.”(『素問·評熱病論』)<sup>179</sup>라 하여 수액대사에 폐가 관여하므로 水病에 微腫先見於目下하는 증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눈과 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기가 신에 있으면 병으로 골통, 음비증이 생깁니다. 음비증이

169) “邪在心，則病心痛。喜悲，時眩仆。”

170) “胸腹滿，手熱肘攣掖腫，心澹澹大動，脇胃腕不安，面赤目黃，善噦噎乾，甚則色衰，渴而慾飲，病本于心。”

171) “心脈急甚者爲痰癥……微大爲心痺引背，善淚出，小甚爲善噦，微小爲消糲。”

172) “心有所喜，神有所惡，卒然相感，則精氣亂，視誤，故惑。神移乃復，是故問者爲迷，甚者爲惑。”

173) “故悲哀愁憂則心動，心動則五臟六腑皆搖，搖則宗脈感，宗脈感則液道開，液道開，故泣涕出焉。”

174) “小便黃者，少腹中有熱也，不能正偃者，胃中不和也，正偃則欬甚，上迫肺也，諸有水氣者，微腫先見於目下也。”

175) “少陽之勝，熱客於胃，煩心，心痛，目赤，欲嘔，嘔

酸，善飢，耳痛，溺赤，善驚，譫妄，暴熱消燄。”

176) “熱病噎乾多飲，善驚，臥不能起，取之膚肉，以第六鍼，五十九，目皆青，素肉于脾，不得素之木，木者肝也。”

177) “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眥，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人瘦則外泄而寒，則爲寒中而泣出。”

178) “勞風法在肺下，其爲病也，使人強上冥視，唾出若涕，惡風而振寒，此爲勞風之病。”

179) “小便黃者，少腹中有熱也，不能正偃者，胃中不和也，正偃則欬甚，上迫肺也，諸有水氣者，微腫先見於目下也。”

란 만져보아서는 알 수 없으나 복장, 요통이 있고 대변보기 힘들며 어깨, 등, 목, 목덜미가 뻣뻣하면서 아프며 때로 현훈이 생깁니다.”(『靈樞·五邪』)<sup>180</sup>라 하여 腎에 침범한 사기에 의하여 眩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고, “熱病에 身重, 骨痛, 耳聾하고 눈이 어두울 때는 骨을 찢러야 하는데, 구침 가운데 네 번째 침을 사용하여 五十九刺를 실시해야 하며, 骨病에 먹지 않고 입 언저리와 귀가 푸른 것은 뼈와 관계된 신경을 치료해야하며 토와 관련된 것을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 토는 비이다.”(『靈樞·熱病』)<sup>181</sup>라 하여 신열에 의해서도 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장부와 눈의 관계를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장부의 기능 저조는 九竅不利를 유발한다는 정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직접 눈과 관계된 내용에서는 오행수성상 눈과 가장 관련이 깊은 肝膽의 병증에서 안과질환이 나타난다는 내용, 심이 감정을 지배한다는 관점에서 감정과 눈물의 분비이상에 관한 내용, 비위와 폐가 수습대사에 관여한다는 측면에서 안검의 부종과의 관계를 언급한 내용, 오장이 熱盛하여 열기가 上逆하여 안과질환이 발생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4) 경락 병변

『내경』에서는 여러 경맥이 눈에서 起始하거나 終止하고 혹은 통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맥들의 병변은 곧 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눈의 기능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여겼고 치료 역시 경락을 이용하여 치료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눈과 경락 병변을 설명한 『내경』 조문을 살펴보면, “여기서 주로 진액의 소생병이란 귀가 멀고 눈이 노랗게 되며, 뺨이 붓고 목과 턱, 어깨와 팔

꿈치, 팔의 바깥쪽 뒤 모서리가 아픉니다.”(『靈樞·經脈』)<sup>182</sup>와 같이 눈 주위에 유주하는 경락에 병이 있을 때 안과질환이 나타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靈樞·經脈』<sup>183</sup>184)185)186)187)188)189)190)191), 『靈樞·衛氣』<sup>192</sup>), 『素問·診要經終論』<sup>193</sup>194)195), 『靈樞·終始』<sup>196</sup>197)198), 『素問·三部九候論篇』<sup>199</sup>), 『素問·厥論篇』<sup>200</sup>201), 『素問·厥論

182) “是主液所生病者, 耳聾, 目黃, 頰腫, 頸, 頰, 肩, 臑, 肘, 臂外後廉痛.”

183) “肺手太陰之脈 …… 是動則病肺脹滿, 脹滿而喘咳, 缺盆中痛, 甚則交兩手而昏, 此爲臂厥.”

184) “是主心所生病者, 目黃, 脇痛, 脇臂內後廉痛厥, 掌中熱痛, 爲此諸病.”

185) “膀胱足太陽之脈 …… 是動則病衝頭痛, 目似脫, 項如拔, 脊痛, 腰似折, 髀不可以曲, 脛如結, 踰如裂, 是爲蹵厥.”

186) “膀胱足太陽之脈 …… 是主筋所生病者, 痔, 癩, 狂, 癲疾, 頭頰項痛, 目黃, 淚出, 衄血, 項, 背, 腰, 尻, 腳腫, 腳皆痛, 小趾不用.”

187) “腎足少陰之脈 …… 是動則病機不欲食, 面如漆柴, 咳唾則有血, 喝喝而喘, 坐而欲起, 目眩暈如無所見, 心如懸若鐵狀.”

188)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 是動則病手心熱, 臂肘攣急, 腋腫, 甚則胸脇支滿, 心中憺憺大動, 面赤, 目黃, 喜笑不休.”

189) “三焦手少陽之脈 …… 是主氣所生病者, 汗出, 目銳皆痛, 頰痛, 耳後, 肩, 臑, 肘, 臂外皆痛, 小指次指不用.”

190) “膽足少陽之脈 …… 是主骨所生病者, 頭痛, 頰痛, 目銳皆痛, 缺盆中腫痛, 腋下腫, 馬刀俠癭.”

191) “五陰氣俱絕, 則目系轉, 轉則目運, 目運者, 爲志先死, 志先死, 則違一日半死矣.”

192) “手心主之本, 在掌後兩筋之間二寸中, 標在腋下下三寸也. 凡候此者, 下虛則厥, 下盛則熱, 上虛則眩, 上盛則熱痛.”

193) “太陽之脈其終也, 戴眼反折瘖瘖, 其色白, 絕汗乃出, 出則死矣.”

194) “少陽終者, 耳聾, 百節皆縱, 目纒絕系, 絕系一日半死, 其死也, 色先青白, 乃死矣.”

195) “陽明終者, 口目動作, 善驚, 妄言, 色黃, 其上下經盛, 不仁則終矣.”

196) “太陽之脈, 其終也, 戴眼, 反折, 瘖瘖, 其色白, 絕皮乃絕汗, 絕汗則終矣.”

197) “少陽終者, 耳聾, 百節盡縱, 目系絕, 一日半則死矣, 其死也, 色青白, 乃死.”

198) “陽明終者, 口目動作, 喜驚, 妄言, 色黃, 其上下之經盛而不仁, 則終矣.”

199) “足太陽氣絕者, 其足不可屈伸, 死必戴眼.”

180) “邪在腎, 則病骨痛, 陰痺, 陰痺者, 按之而不得, 腹脹, 腰痛, 大便難, 肩背頸項痛, 時眩.”

181) “熱病身重骨痛, 耳聾而好瞑, 取之骨, 以第四鍼, 五十九刺, 骨病不食, 齒齲耳青, 索骨于腎, 不得索之士, 土者脾也.”

』202)、『素問·玉機眞藏論』203)、『素問·熱論』204)、『靈樞·大惑論』205)206)，“이로써 볼진대 두통과 전질(두부질환)이 일어나는 것은, 아래가 허하고 위가 실함이니, 잘못이 족소음 신과 거양 방광에 있는지라 병이 심해지면 신으로 접입 됩니다. 순봉 초우하고 눈이 어둡고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은 아래가 실하고 위가 허함이니, 과실이 족소양담과 췌음간에 있는지라 병이 심해지면 간으로 전입됩니다.”(『素問·五臟生成論』207)와 같이 안과질환을 동반한 일부질환이 간담경으로 경락을 통하여 병사가 전달되어 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설명하고 있고(『素問·五臟生成論』), “풍기가 양명과 더불어 위로 들어오에 맥을 따라 위로 눈 안쪽 모서리에 이르기에, 그 사람이 살찐 사람이면 풍기가 밖으로 외설하지 못하여, 곧 열증하여 눈이 누렇게 되고 그 사람이 수척하게 마른 사람이면 밖으로 외설하여 한하게 되니 곧 한증하여 눈물이 나오게 됩니다.”(『素問·風論』208)와 같이 경락에 외사가 침입했을 경우 외사가 외설되지

못하여 경락을 타고 눈에 침입하여 발병되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素問·風論』209)、『素問·繆刺論』210)、『靈樞·寒熱病』211)212)，“족양명경근은 …… 족양명경근에 병이 생기면 가운데 발가락이 썩고 및 정강이에 전근이 생기며 발 부위의 근육이 탄탄해지고 복토혈에 전근이 생기고 넓적다리 앞쪽이 부으며 퇴산이 생기고 복부의 근이 구급하고 결분 및 뺨 부위가 땅기며 갑자기 입이 비뚤어지고 근이 구급할 때는 눈을 감지 못하며, 열이 나면 근이 이완되어 눈을 뜨지 못합니다. 뺨 부위의 근에 한사가 있으면 급히 뺨이 땅겨 입이 돌아가고, 열사가 있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무력해져 수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한 쪽으로 비뚤어집니다.”(『靈樞·經筋』213)와 같이 각 경락과 관련된 경근의 이상으로 인하여 안검의 운동장애 및 안과질환이 일어난다고 하였다(『靈樞·經筋』214)215)216)217)、『素問·四時刺逆從論篇』218)． 그리고 “열병에 먼저 몸이 무겁고 뻘

200) “巨陽之脈，則腫首頭重，足不能行，發爲阿仆。”  
 201) “陽明之脈，則癩疾欲走呼，腹滿不得臥，面赤而熱，妄見而妄言。”  
 202) “手太陽脈逆，耳聾泣出，項不可以顧，腰不可以伉仰。”  
 203) “脾脈者土也，孤臟，以灌四傍者也 …… 太過則令人四支不舉，其不及則令人九竅不通，名曰重強。”  
 204) “傷寒一日，巨陽受之，故頭項痛，腰脊強，二日陽明受之，陽明主肉，其脈俠鼻，絡於目，故身熱目痛而鼻乾，不得臥也。”  
 205) “岐伯曰 衛氣不得入於陰，常留於陽，留於陽則陽氣滿，陽氣滿則陽蹻盛，不得入於陰則陰氣虛，故目不瞑矣。黃帝曰 病目而不得視者，何氣使然？岐伯曰 衛氣留於陰，不得行於陽，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蹻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故目閉也。”  
 206) “黃帝曰 病目而不得視者，何氣使然？岐伯曰 衛氣留於陰，不得行於陽，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蹻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故目閉也。”  
 207) “是以頭痛崩疾，下虛上實，過在足少陰巨陽，甚則入腎，衄蒙招尤，目冥耳聾，上虛下實，過在足少陽厥陰，甚則入肝。”  
 208) “風氣與陽明入胃，循脈而上至目內眥，其人肥，則風氣不得外泄，則爲熱中而目黃，人瘦則外泄而寒，則爲寒中而泣出。”

209) “風氣循風府而上，則爲腦風，風入係頭，則爲目風眼寒，飲酒中風，則爲漏風，入房汗出中風，則爲內風，新沐中風，則爲首風，久風入中，則爲腸風飧泄，外在腠理，則爲泄風。”  
 210) “邪客於足陽蹻之脈，令人目痛從內眥始。”  
 211) “足陽明有挾鼻入于面者，名曰懸顙，屬口，對入繫目本，視有過者取之，損有餘，益不足，反者益其。”  
 212) “足太陽有通項入于腦者，正屬目本，名曰眼系，頭目苦痛取之，在項中兩筋間，入腦乃別陰蹻、陽蹻，陰陽相交，陽入陰，陰出陽，交于目銳眥，陽氣盛則瞑目，陰氣盛則瞑目。”  
 213) “足陽明之筋 …… 其病足中趾支脛轉筋，脚跳堅，伏兔轉筋，腓前腫，疝疝，腹筋急，引缺盆及頰，卒口僻，急者，目不合，熱則筋縱，目不開，頰筋有寒，則急引頰移口，有熱則筋弛縱，緩不勝收，故僻。”  
 214) “手太陽之筋 …… 其病小指支肘內銳骨後廉痛，循臂陰，入腋下，腋下痛，腋後廉痛，繞肩胛引頸而痛，應耳中鳴痛引頰，目瞑良久乃得視，頸筋急，則爲筋度頸腫。”  
 215) “手少陽之筋 …… 其支者，上曲牙，循耳前，屬目外眥，上乘頰，結於角，其病當所過者，即支轉筋。”  
 216) “足之陽明，手之太陽，筋急則口目爲噤，皆急不能卒視，治皆如右方也。”  
 217) “足少陽之筋 …… 從左之右，右目不開，上過右角，并蹻脈而行，左絡於右，故傷左角，右足不用，命曰，維筋相交。”  
 218) “少陽有餘，病筋痺，脇滿，不足病肝痺，滑則病肝風疝，澹則病積，時筋急目痛。”

가 아프며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足少陰經을 찌르고 병이 심하면 五十九刺를 찌러라.”(『素問·刺熱』<sup>219</sup>)와 같이 안과증상을 동반한 기타 질환에 대하여 자칭해야 할 경락 또는 경혈을 언급하였다(『素問·刺痛』<sup>220</sup>、『素問·刺腰痛』<sup>221</sup>、『靈樞·熱病』<sup>223</sup>、『靈樞·厥病』<sup>224</sup>、『靈樞·邪客』<sup>225</sup>、『靈樞·論疾診尺』<sup>226</sup>、『靈樞·衛氣行』<sup>227</sup>、『靈樞·大惑論』<sup>229</sup>)

##### 5) 精·氣·津·液·血 병변

『내경』에는 “황제가 말하기를 내가 듣기로 사람에게는 精·氣·津·液·血·脈이 있다고 하는데, 내 생각에는 단지 氣일 뿐인데 지금 여섯 개로 이름을 붙이는 까닭을 모르겠습니다.”(『靈樞·決氣』<sup>230</sup>)라 하여 精·氣·血·津·液·脈이 모두 하나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자양을

받음으로써 눈의 기능활동이 이루어지므로 눈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다고 인식하였다.

氣의 병변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창천의 기가 청정하면 정신이 다스려지고, 이를 따르면 양기가 고밀해져 비록 적사가 있을지라도 능히 해칠 수 없습니다 …… 이를 그르치면 안으로 구구를 닫으며 밖으로 기욕을 막히게 하여, 위기가 산해하니, 이를 일러 자상이라하며, 기를 소삭시킴입니다.”(『素問·生氣通天論』<sup>231</sup>)와 같이 陽氣 혹은 衛氣가 정상적이지 못할 경우 九竅가 폐쇄되거나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素問·六元正紀大論』<sup>232</sup>、『靈樞·口問』<sup>233</sup>、『靈樞·決氣』<sup>234</sup>、『靈樞·邪客』<sup>235</sup>、『靈樞·大惑論』<sup>236</sup>、<sup>237</sup>、<sup>238</sup>)

脈氣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 맥기가 오르는 것이 실하면서 강한 것, 이를 일러 태과라 하며, 병이 외부에 있고, 맥이 오는 것이 부실하면서 미약한 것, 이를 일러 불급이라 하며 병이 내부에 있습니다. …… 태과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잘 잊어버리게 하고, 홀홀히 현모하게 하며, 전질을 잃게 하고 그것이 불급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흉통과 등을 당기게 하며 아래로는 양쪽 험기 아래가 만합니다.”(『素問·玉機真藏論』<sup>239</sup>)이라 하여 맥기

219) “熱病先身重骨痛，耳聾好瞑，刺足少陰，病甚，爲五十九刺。”

220) “腎痛者，令人灑灑寒，腰痛宛轉，大便難，目眴眴然，手足寒，刺足太陽少陰。”

221) “解脈令人腰痛，痛引肩，目眩眩然，時遺洩，刺解脈，在膝筋內分間，郛外廉之橫脈出血，血變而止。”

222) “昌陽之脈，令人腰痛，痛引膺，目眩眩然，甚則反折，舌捲不能言，刺內筋爲二病，在內踝上大筋前，太陰後上踝二寸所。”

223) “目中赤痛，從內眥始，取之陰睛。”

224) “厥頭痛，頭脈痛，心悲善泣，視頭動脈反盛者，刺盡去血，後調足厥陰。”

225) “黃帝問於伯高曰 夫邪氣之客人也，或令人目不瞑不臥出者，何氣使然？伯高曰 五穀入于胃也，其糟粕津液宗氣，分爲三隧，故宗氣積于胸中，出于喉嚨，以貫心脈，而行呼吸焉。營氣者，泌其津液，注之于脈，化以爲血，以榮四末，內注五藏六府，以應刻數焉。”

226) “診目痛，赤脈從上下者，太陽病，從下上者，陽明病，從外走內者，少陽病。”

227) “其散者，別於目銳眥，下手太陽，下至手小指之間外側。”

228) “其散者，別於目銳眥，下足少陽，注小指次指之間，以上循手少陽之分側，下至小指之間。”

229) “故邪中於項，因逢其身之虛，其入深，則隨眼系以入於腦，入於腦則腦轉，腦轉則引目系急，目系急則目眩以轉矣。”

230) “黃帝曰 余聞人有精氣津液血脈，余意以爲一氣耳，今乃采爲六名，余不知其所以然。”

231) “蒼天之氣，清淨則志意治，順之則陽氣固，雖有賊邪，弗能害也 …… 失之則內閉九竅，外壅肌肉，衛氣散解，此謂自傷，氣之削也。”

232) “其病淋，目瞑目赤，氣鬱於上而熱。”

233) “故上氣不足，腦爲之不滿，耳爲之苦鳴，頭爲之苦傾，目爲之眩。”

234) “精脫者，耳聾，氣脫者，目不明。”

235) “晝日行於陽，夜行於陰，常從足少陰之分間，行於五臟六腑。今厥氣客於五臟六腑，則衛氣獨衛其外，行於陽，不得入於陰，行於陽則陽氣盛，陽氣盛則陽橋陷，不得入於陰，陰虛，故目不瞑。”

236) “黃帝曰 病目而不得視者，何氣使然？歧伯曰 衛氣留於陰，不得行於陽，留於陰則陰氣盛，陰氣盛則陰睛滿，不得入於陽則陽氣虛，故目閉也。”

237) “故腸胃大，則衛氣行留久，皮膚濕，分肉不解，則行遲，留於陰也久，其氣不清，則慾瞑，故多臥矣。”

238) “其腸胃小，皮膚滑以緩，分肉解利，衛氣之留於陽也久，故少瞑焉。”

239) “其氣來實而強，此謂太過，病在外，其氣來不實而

가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는 눈도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혈과 관계된 내용으로는 “오래도록 보면 혈을 상하게 하고, 오래 누워있으면 기를 상하게 하며, 오래 앉아 있으면 육을 상하게 하고, 오래 서있으면 골을 상하게 하며, 오래 걸으면 근육을 상하게 하나니 이를 일러 오로에 의해 손상당하는 것이라 합니다.”(『素問·宣明五氣篇』<sup>240</sup>)이라 하여 눈의 흑사는 혈을 손상시킨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靈樞·九鍼論』<sup>241</sup>) 기타 원인으로 출혈이 있거나 血脫의 경우 눈이 감감해지는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였다(『素問·腹中論』<sup>242</sup>、『素問·四時刺逆從論』<sup>243</sup>).

津液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그러므로 上液之道가 열리면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으면 진액이 고갈되고 진액이 고갈되면 精이 물을 댈 수가 없게되며, 精이 물을 댈 수 없게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奪精이라 부른다.”(『靈樞·口問』<sup>244</sup>)과 같이 직접 진액의 고갈이 눈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한 내용과 “여기서 주로 진액의 소생병이란 귀가 멀고 눈이 노랗게 되며, 뺨이 붓고 목과 턱, 어깨와 팔꿈치, 팔의 바깥쪽 뒤 모서리가 아픕니다.”(『靈樞·經脈』<sup>245</sup>)과 같이 진액을 주관하는 경맥의 질환에 의해서 안과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靈樞·經脈』<sup>246</sup>).

微。此謂不及，病在中……太過則令人善忘，忽忽眩冒而顛疾。其不及，則令人胸痛引背，下則兩脇脹滿。”  
 240) “久視傷血，久臥傷氣，久坐傷肉，久立傷骨，久行傷筋。是謂五勞所傷。”  
 241) “久視傷血，久臥傷氣，久坐傷肉，久立傷骨，久行傷筋。此五久勞所病也。”  
 242) “帝曰 有病胸脇支滿者，妨於食，病至則先聞腥臊臭，出清液，先唾血，四支清，目眩，時時前後血，病名為何，何以得之？”  
 243) “冬刺經脈，氣血皆奪，令人目不明。”  
 244) “故上液之道開則泣，泣不止則液竭，液竭則精不灌，精不灌則目無所見矣。故命曰奪精。”  
 245) “是主液所生病者，耳聾，目黃，頰腫，頸頰肩膊肘臂外後廉痛。”  
 246) “是主津液所生病者，目黃，口乾，衄血，喉痺，肩

이외에도 “髓海가 유여하면 몸이 가볍고 튼튼하고 힘이 많게 된다. 그러나 스스로 도가 지나치게 행동하면 髓海가 부족하게 되어 머리가 흔들리고 귀가 울리며 정강이가 시리고 눈이 캄캄해지고 빙빙 돌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기운이 없어지고 늙기를 잘하게 된다.”(『靈樞·海論』<sup>247</sup>)와 같이 精髓의 부족으로 인해서도 안과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록하였다(『靈樞·大惑論』<sup>248</sup>).

### 6) 기타

『내경』에 기재된 눈과 기타 병변의 관계는 嗜慾過多로 인한 시력저하(『素問·上古天真論』<sup>249</sup>), 誤治로 인한 실명(『素問·刺禁論』<sup>250</sup>251), 神의 손상으로 인한 착시(『靈樞·大惑論』<sup>252</sup>), 눈과 콧물과의 관계(『素問·氣厥論』<sup>253</sup>)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消瘴(『靈樞·五變』<sup>254</sup>), 水脹(『靈樞·水脹』<sup>255</sup>), 風水(『素問·評熱病論』<sup>256</sup>), 神志悲(『素問·解精微論』<sup>257</sup>258), 鼻淵(『素問·氣厥論』

前腦痛，大指次指痛不用。”

247) “髓海有餘，則輕勁多力，自過其度，髓海不足，則腦轉耳鳴，脛痠眩暈，目無所見，懈怠安臥。”  
 248) “邪其精，其精所中，不相比也，則精散，精散則視岐，視岐見兩物。”  
 249) “是以嗜慾不能勞其目，淫邪不能惑其心，愚智賢不肖，不懼於物，故合於道。”  
 250) “刺面，中溜脈，不俾爲盲。”  
 251) “刺匡上陷骨中脈，爲漏，爲盲。”  
 252) “心有所喜，神有所惡，卒然相感，則精氣亂，視誤，故惑，神移乃復。”  
 253) “膈移熱於腦，則辛頰鼻淵，鼻淵者，濁涕下不止也，傳爲衄鱗眼目。”  
 254) “此人薄皮膚，而目堅固以深者，長衝直揚，其心剛，剛則多怒，怒則氣上逆，胸中畜積，血氣逆留，臄皮充肌，血脈不行，轉而爲熱，熱則消肌膚，故爲消瘴。”  
 255) “水始起也，目窠上微腫，如新臥起之狀，其頸脈動，時咳，陰股間寒，足脛痠，腹乃大，其水已成矣。”  
 256) “至必少氣時熱，時熱從胸背至上至頭，汗出，手熱，口乾，苦渴，小便黃，目下腫，腹中鳴，身重難以行，月事不來，煩而不能食，不能正偃，正偃則咳，病名曰風水。”  
 257) “夫志悲者惋，惋則沖陰，沖陰則志去目，志去則神不守精，精神去目，涕泣出也。”  
 258) “夫水之精爲志，火之精爲神，水火相感，神志俱悲，是以目之水生也。”

259)、五勞(『靈樞·九鍼論』)260) 등의 병변에 모두 안과 병변이 수반된다고 하였다.

### 3. 눈의 진단

#### 1) 망진

『내경』에는 진단과 관련 있는 내용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靈樞·論疾診尺篇』의 “目赤色者, 病在心, 白在肺, 青在肝, 黃在脾, 黑在腎”, “診目痛, 赤脈從上下者, 太陽病, 從下上者, 陽明病, 從外走內者, 陽明病”, 『素問·三部九候論』의 “瞳子高者, 太陽不足”, “目內陷者死” 등과 같은 수많은 원문은 안과질환의 정확한 病位、病因 뿐만 아니라 豫候와 轉歸에까지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내경』에 있어 진단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용감한 사람은 눈빛이 깊고 확고하며, 눈썹이 곳곳이 서고 시선이 똑바르면서 눈에 빛이 나며, 삼초의 무늬를 가로로 놓이고, 그 심은 바르고 곧으며, 간은 크고 견실하며, 담즙이 가득하여 성하고, 성을 내면 기가 성해져서 가슴이 벌어지고 간이 들리며 담이 가로로 놓이고 눈초리가 찢어지면서 눈을 치뜨며 털이 곧두서고 얼굴이 파랗게 되니, 이것이 용감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까닭입니다.”(『靈樞·論勇』)261)와 같이 눈 부위를 살펴봄으로써 사람의 용감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며(『靈樞·論勇』)262), “환자의 기색을 보고 그 눈을 관찰하여 병기가 흩어지고 돌아오는 것을 안다는 것은 그 눈빛을 봄으로써 병의 존망을 안다는 것입니다.”(『靈樞·四時氣』)263)와 같이 눈을 관찰함으

로써 병과 환자의 상태 및 수명의 장단까지도 모두 살필 수 있다고 하여(『靈樞·小鍼解』)264)265)、(『靈樞·邪客』)266)、(『靈樞·五閱五使』)267)268)、(『靈樞·五色』)269)、(『素問·脈要精微論』)270) 몸의 전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하였다.

안면진단에 있어서는 눈은 국소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정은 수면에 해당하고 꺾 위쪽은 인후에 해당하며 …… 목내자 위 부위는 젓가슴에 해당한다.”(『靈樞·五色』)271)와 같이 目內眥가 가슴과 유방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며, 눈언저리의 색깔 변화로 간병의 유무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靈樞·五閱五使』)272). 또한 “무릇 오색을 관찰하여 살핌에 얼굴은 황색의 위기를 띄면서 눈이 푸르거나, 얼굴이 황색의 위기를 띄면서 눈이 붉거나, 얼굴이 황색의 위기를 띄면서 눈이 회거나, 얼굴이 황색의 위기를 띄면서 눈이 검은 사람은 모두 죽지는 않습니다. 얼굴이 푸르면서 눈이 붉거나, 얼굴이 붉으면서 눈이 회거나, 얼굴이 푸르면서 눈이 검거나, 얼굴이 검은면서 눈이 회거나, 얼굴이 붉으면서 눈이 푸르면 모두 죽습니다.”(『素問·五藏生成』)273)라고 하여 안면진단에 있어서 생사

病之存亡也.”

264) “睹其色, 察其目, 知其散復, 一其形, 聽其動靜者, 言上工, 知相五色於目.”

265) “所以察其目者, 五臟使五色循明, 循明則聲章, 聲章者, 則言聲與平生異也.”

266) “因視目之五色, 以知五臟, 而決死生, 視其血脈, 察其色, 以知其寒熱痛痺.”

267) “五官已辨, 闕庭必張, 乃立明堂, 明堂廣大, 蕃蔽見外, 方壁高基, 引垂居外, 五色乃治, 平博廣大 壽中百歲.”

268) “五官不辨, 闕庭不張, 小其明堂, 蕃蔽不見, 又埤其牆, 牆下無基, 垂角去外, 如是者, 雖平常殆, 況加疾哉.”

269) “明堂骨高以起, 平以直, 五臟次於中央, 六腑挾其兩側, 首面上於闕庭, 王宮在於下極, 五臟安於胸中, 眞色以致, 病色不見, 明堂潤澤以清, 五官惡得無辨乎.”

270) “頭者精明之府, 頭傾視深, 精神將奪矣.”

271) “庭者, 首面也, 闕上者, 咽喉也 …… 目內眥上者, 膺乳也.”

272) “故肺病者, 喘息鼻張, 肝病者, 眇青, 脾病者, 唇黃, 心病者, 舌卷短, 靨赤, 腎病者, 靨與頰黑.”

259) “膽移熱於腦, 則辛頰鼻淵, 鼻淵者, 濁涕下不止也, 傳爲衄衄淚目.”

260) “五勞, 久視傷血, 久臥傷氣, 久坐傷肉, 久立傷骨, 久行傷筋, 此五久勞所病也.”

261) “勇士者, 目深以固, 長衡直揚, 三焦理橫, 其心端直, 其肝大以堅, 其膽滿以傍, 怒則氣盛而胸脹, 肝舉而膽橫, 眇裂而目揚, 毛起而面蒼, 此勇士之由然者也.”

262) “怯士者, 目大而不減, 陰陽相失, 其焦理縱, □□衄短而小, 肝系緩, 其膽不滿而縱.”

263) “視其色, 察其目, 以知其散復者, 視其目色, 以知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였다.

눈의 색깔 변화는 “한열병을 진찰함에 적맥이 위에서 내려와 눈동자까지 이르는 것으로, 한 줄기 맥이 나타나면 1년 만에 죽고, 한 줄기 반의 맥이 나타나면 1년 반만에 죽으며, 두 줄기의 맥이 나타나면 2년 만에 죽고, 두 줄기 반의 맥이 나타나면 2년 반만에 죽으며, 세 줄기의 맥이 나타나면 3년 만에 죽습니다.”(『靈樞·論疾診尺論』)274)275)이라 하여 흰자위에 나타나는 적맥의 모양으로 병의 예후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기타 안구의 색깔 변화는 병이 근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고(『靈樞·衛氣失常』)276) 혹은 색상이 가지는 것과 같은 오행속성을 지닌 장에 병이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고(『靈樞·論疾診尺』)277), 안구의 색깔 변화로 황달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하였으며(『素問·平人氣象論』278), 『素問·風論』279), 흰자위의 색깔로 질병의 順逆을 판단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靈樞·玉版』)280).

눈동자의 움직임을 통하여 “동자를 위로 치켜 드는 것은 태양의 기가 부족한 것이고, 대안하는 것은 태양의 기가 이미 끊어진 것이니, 이는 이것은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요령이므로 살피지 않으면 안 됩니다.”(『素問·三部九候論』)281)와 같이 경맥의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안검의 상태변화는 水氣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가치가 있다고 보았으며(『素問·評熱病論』282), 『素問·平人氣象論』283), 『靈樞·論疾診尺』284), “눈꺼풀을 뒤집어 관찰하는데 그 중에 붉은 핏줄이 있고 위에서 아래로 눈동자를 관통하는 것으로 한 줄기의 맥이 나타나면 1년 만에 죽고 한줄기 반의 맥이 나타나면 1년 반만에 죽으면 두 줄기의 맥이 나타나면 2년 만에 죽고 두 줄기 반의 맥이 나타나면 2년 반만에 죽으며 세 줄기의 맥이 나타나면 3년 만에 죽지만 붉은 핏줄이 보이거나 아래로 눈동자를 관통하지 않으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靈樞·寒熱』)285)라 하여 안검의 裏面의 관찰 역시 병의 예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기타 맥진과 함께 응용하면서 “대골이 고고하고, 대육이 함하하며, 흉중에 기가 그득하고, 뱃속이 아프며 심증이 불편하고, 어깨와 목을 끌어당기면서 몸이 열리며, 균을 파괴하고 육을 탈하며, 눈언저리가 함몰되고, 진장맥이 나타남에, 눈으로 사람을 보지 못하면 즉시 죽게되며 그것이 사람을 볼 수 있으면, 그가 이기지 못한 시에 다다름에 죽습니다.”(『素問·玉機真藏論』)286)라고 하여 진장맥의 출현과 더불어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단서로 사용하였다(『素問·三部九候論』)287).

이외에도 『내경』에는 눈의 망진 방면에 관련된 내용이 13개 조문에 기재되어 있다288).

273) “凡相五色之奇脈。面黃目青。面黃目赤。面黃目白。面黃目黑者。皆不死也。面青目赤。面赤目白。面青目黑。面黑目白。面赤目青。皆死也。”  
 274) “診寒熱。赤脈上下至瞳子。見一脈。一歲死。見一脈半。一歲半死。見二脈。二歲死。見二脈半。二歲半死。見三脈。三歲死。”  
 275) “診目痛。赤脈從上下者。太陽病。從下上者。陽明病。從外走內者。少陽病。”  
 276) “目色青黃赤白黑者。病在筋。”  
 277) “目赤色者。病在心。白在肺。青在肝。黃在脾。黑在腎。黃色不可名者。病在胸中。”  
 278) “目黃者曰黃疸。”  
 279) “肝風之狀。多汗惡風。善悲。色微蒼。喑乾善怒。時憎女子。診在目下。其色青。”  
 280) “以爲傷者。其白眼青黑眼小。是一逆也。”  
 281) “瞳子高者太陽不足。戴眼者已絕。此決死生之要。不可不察也。”

282) “諸有水氣者。微腫先見於目下也。帝曰。何以言?岐伯曰。水者陰也。目下亦陰也。腹者至陰之所居。故水在腹者。必使目下腫也。”  
 283) “目裏微腫如臥蠶起之狀曰水。”  
 284) “視人之目窠上。微癰如新臥起狀。其頸脈動。時咳。按其手足上。窅而不起者。風水膚脹也。”  
 285) “反其目視之。其中有赤脈。上下貫瞳子。見一脈。一歲死。見一脈半。一歲半死。見二脈。二歲死。見二脈半。二歲半死。見三脈。三歲而死。見赤脈不下貫瞳子。可治也。”  
 286) “大骨枯槁。大肉陷下。胸中氣滿。腹內痛。心中不便。肩項身熱。破胸脫肉。目匡陷。眞臟見。目不見人。立死。其見人者。至其所不勝之時則死。”  
 287) “形氣相得者生。參伍不調者病。三部九候皆相失者死。上下左右之脈相應如參春者病甚。上下左右相失不可數者死。中部之候雖獨調。與衆臟相失者死。中部之候相減者死。目內陷者死。”

## 2) 기타

『내경』에는 안과 망진 이외에 절진에서 나타나 는 맥상과 눈 부위의 망진을 관련시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눈과 관련된 기타 진단법에 관한 『내경』의 조문을 살펴보면, “동정을 절맥하면서, 눈의 정명을 통하여 신기의 존재 여부를 살피고, 오색의 변화를 살펴, 오장기의 유여함과 부족함,

288) “夫脈之小大滑濇浮沈，可以指別，五藏之象，可以類推，五藏相音，可以意識，五色微診，可以目察。”(『素問·五藏生成』)

“少陽終者，耳聾百節皆縱，目眵絕系，絕系一日半死，其死也，色先青白，乃死矣。陽明終者，口目動作，善驚妄言，色黃，其上下經盛，不仁則終矣。”(『素問·診要經終論』)

“切脈動靜而視精明，察五色，觀五藏有餘不足，六府強弱，形之盛衰，以此參伍，決死生之分。”(『素問·脈要精微論』)

“岐伯曰 至必少氣時熱，時熱從胸背上至頭，汗出手熱，口乾苦渴，小便黃，目下腫，腹中鳴，身重難以行，月事不來，煩而不能食，不能正偃，正偃則欬，病名曰風水，論在刺法中。”(『素問·評熱病論』)

“腰痛俠脊而痛至頭兀兀然，目眵眩欲僂僕，刺足太陽郄中出血。”(『素問·刺腰痛』)

“觀其色，察其目，知其散復，一其形，聽其動靜，知其邪正。”(『靈樞·九鍼十二原』)

“故脈弗榮則筋急，筋急則引舌與卵，故唇青舌卷卵縮，則筋先死，庚篤辛死，金勝木也。五陰氣俱絕，則目系轉，轉則目運，目運者為志先死，志先死則遠一日半死矣。五陰氣俱絕，則目系轉，轉則目運，目運者為志先死，志先死則遠一日半死矣。”(『靈樞·經脈』)

“熱病啞乾多欬，善驚，臥不能起，取之膚肉，以第六鍼，五十九，目眵青，索肉于脾，不得索之木，木者肝也。熱病面青腦痛，手足躁，取之筋間，以第四鍼，于四逆，筋蹇目浸，索筋于肝，不得索之金，金者肺也。”(『靈樞·熱病』)

“岐伯曰 肝者，主為將，使之候外，慾知堅固，視目小大。”(『靈樞·師傳』)

“目下果大，其膽乃橫。”(『靈樞·師傳』)

“少俞答曰 此人薄皮膚，而目堅固以深者，長衝直數，其心剛，剛則多怒，怒則氣上逆，胸中畜積，血氣逆留，臆皮充肌，血脈不行，轉而為熱，熱則消肌膚，故為消癘。”(『靈樞·五變』)

“少俞曰 勇士者，目深以固，長衝直數，三焦理橫，其心端直，其肝大以堅，其膽滿以傍，怒則氣盛而張，肝舉而膽橫，皆裂而目眵，毛起而面蒼，此勇士之由然者也。”(『靈樞·論勇』)

“岐伯答曰 水始起也，目眵上微腫，如新臥起之狀，其頭脈動，時欬，陰股間寒，足脛腫，腹乃大，其水已成矣。”(『靈樞·水脹』)

육부의 강약과 형체의 성쇠를 관찰하는데,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생사의 구분을 결정합니다.”(『素問·脈要精微論』)<sup>289)</sup>라고 하여 정명의 관찰을 통하여 신기의 존재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맥진만큼이나 중요한 진단방법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맥이 왕성함, 피부에 열남, 배가 창만함, 대소변이 통하지 않음, 혼민 하는 것, 이것들을 일러 오실이라 합니다.”(『素問·玉機真藏論』)<sup>290)</sup>라고 한 것처럼 안과증상이 다른 증상들과 조합되어 하나의 병증을 이루는 요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 4. 치료

『내경』에서는 안과질환에 대하여 주로 침구치료의 방법을 이용했으며, 약물치료에 관한 내용은 기재된 내용이 극히 적다.

## 1) 침구 치료

안과질환에 대한 침구치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무릇 침자의 도는 기가 조화되면 그치는 것입니다. 음을 보하고 양을 사하면 음성이 더욱 낭랑해 지고 귀와 눈이 밝아지며, 이와 반대로 하면 혈기가 운행되지 않습니다.”(『靈樞·終始』)<sup>291)</sup>와 같이 침구 치료를 통하여 눈에 연결된 경락의 기혈 소통을 도와 눈을 밝게 한다는 내용이 있다(『素問·刺腰痛』<sup>292)293)294)295)</sup>, 『靈樞·熱病』<sup>296)</sup>, 『素問·繆

289) “切脈動靜而視精明，察五色，觀五臟有餘不足，六腑強弱，形之盛衰，以此參伍，決死生之分。”

290) “脈盛，皮熱，腹脹，前後不通，閃昏，此謂五實。”

291) “凡刺之道，氣調而止，補陰瀉陽，音氣益彰，耳目聰明，反此者，血氣不行。”

292) “陽明令人腰痛，不可以顧，顧如有見者，善悲，刺陽明於筋前三指，上下和之出血，秋無見血。”

293) “解脈令人腰痛，痛而引肩，目眵眩然，時遺洩，刺解脈，在膝筋肉分間，郄外廉之橫脈出血，血變而止。”

294) “昌陽之脈，令人腰痛，痛引膺，目眵眩然，甚則反折，舌卷不能言，刺內筋為二指，在內踝上大筋前，太陰後上踝二寸所。”

295) “腰痛俠脊，而痛至頭，兀兀然，目眵眩欲僂僕，刺足太陽郄中出血。”

刺論」<sup>297)</sup>、『靈樞·厥病」<sup>298)</sup>、『靈樞·口問」<sup>299)</sup>300)、『靈樞·寒熱病」<sup>301)</sup>302)、『素問·刺禁論」<sup>303)</sup>304)、『靈樞·熱病」<sup>305)</sup>。

또한 “열병으로 얼굴이 퍼렇고 머리가 아프며 손발이 조동하면 근 사이에 침을 놓는데 제4침으로 하며, 사역증과 근에 경련이 일어나 견지 못하고 눈이 침침하여 잘 보이지 않을 때에는 근과 배합되는 간에서 취해야 하고 금에서 취해서는 안 되는데 금은 폐이기 때문입니다.”(『靈樞·熱病」<sup>306)</sup>)라고 한 것처럼 熱邪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과질환들에 대한 침구치료 방법을 기재한 내용도 있으며(『素問·刺熱」<sup>307)</sup>308)、『靈樞·熱病」<sup>309)</sup>310)311)(『素問·刺疔」<sup>312)</sup>), “대열이 온몸에 있고,

- 296) “目中赤痛, 從內眥始, 取之陰蹻.”
- 297) “邪客於足陽蹻之脈, 令人目痛, 從內眥始, 刺外踝之下半寸所, 各二疔, 左刺右, 右刺左, 如行十里頃已.”
- 298) “厥頭痛, 貞貞頭痛而重, 瀉頭上五行, 行五, 先取手少陰, 後取足少陰.”
- 299) “目眩頭傾, 補足外踝下留之.”
- 300) “泣出, 補天柱經俠頸, 俠頸者, 頭中分也.”
- 301) “足陽明有挾鼻入於面者, 名曰懸顛, 屬口, 對入繫目本, 視有過者取之, 損有餘, 益不足, 反者益.”
- 302) “足太陽有通項入於腦者, 正屬日本, 名曰眼系, 頭目苦痛, 取之在項中兩筋間, 入腦乃別.”
- 303) “刺面中溜脈, 不幸爲盲.”
- 304) “刺脈, 上, 陷骨中脈, 爲漏, 爲盲.”
- 305) “熱病不可刺者有九, 一曰, 汗不出, 大額發赤, 噦者死, 二曰, 泄而腹滿甚者死, 三曰, 目不瞑, 熱不已者死.”
- 306) “熱病面青, 腦痛, 手足躁, 取之筋間, 以第四針於四逆, 筋間目浸, 索筋於肝, 不得, 索之金, 金者肺也.”
- 307) “熱病先身重骨痛, 耳聾, 好瞑, 刺足少陰, 病甚爲五十九刺.”
- 308) “熱病先眩冒而熱, 胸脇滿, 刺足少陰少陽.”
- 309) “熱病噦乾多飲, 善驚, 臥不能起, 取之膚肉, 以第六針, 五十九, 目眇青, 索肉於脾, 不得, 索之木, 木者肝也.”
- 310) “熱病身重骨痛, 耳聾而好瞑, 取之骨, 以第四針, 五十九, 刺骨, 病不食, 齧齒耳青, 索骨於腎, 不得, 索之土, 土者脾也.”
- 311) “熱病頭痛, 顛顛, 目系, 脈痛, 善衄, 厥熱病也, 取之以第三針, 視有餘不足.”
- 312) “腎厥者, 令人洒洒然, 腰脊痛, 宛轉, 大便難, 目而响然, 手足寒, 刺足太陽少陰.”

발광하여 헛것이 보이고 환청이 있으며 헛소리를 할 때는 즉양명경과 대락을 살펴서 침을 놓는데 허한 자는 보하고 어혈이 있으면서 실한 자는 사합니다.”(『靈樞·刺節眞邪」<sup>313)</sup>)라고 한 것처럼 熱이 심한 질환에 동반되는 안과질환을 치료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靈樞·癲狂」<sup>314)</sup>315). 반대로 “길증 때 척추를 끼고 정수리까지 이르러 아프며 머리가 무겁고 눈이 어두워지며 허리와 등이 뻣뻣해지면 족태양경의 도금에 있는 혈락을 취합니다.”(『靈樞·雜病」<sup>316)</sup>)라고 한 것처럼 길증에 동반되는 안과증상에 대한 치법 또한 기재하였다.

이외에도 “그 기색을 보고 눈을 관찰하여 기가 흠어지고 회복함을 알며, 그 형태의 풍만함과 수척함, 강약을 분별하고, 거취의 동정을 들여보아 그 정기와 사기의 상태를 압니다. 오른손으로 침을 밀어 넣고 왼손으로는 침을 잡고 제어하여 득기가 오면 침을 뽑습니다.”(『靈樞·九針十二原」<sup>317)</sup>)라고 한 것처럼 안과질환이 아닌 일반 질환에서 눈을 관찰하면서 환자의 神氣를 조절하여 침 치료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돕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외에도 8개의 조문에서 안과질환의 침구치료 방법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sup>318)</sup>.

- 313) “大熱遍身, 狂而妄見妄聞妄言, 視足陽明及大絡取之, 虛者補之, 血而實者, 瀉之.”
  - 314) “癲疾始生, 先不樂, 頭重痛, 視學目赤, 甚作極, 已而煩心, 候之於顛, 取手太陽, 陽明, 太陰, 血變而止.”
  - 315) “狂, 目妄見, 耳妄聞, 善歌者, 少氣之所生也, 治之取手太陽太陰陽明, 足太陰頭兩顛.”
  - 316) “厥挾脊而痛者, 至頂, 頭沉沉然, 目眩眩然, 腰脊強, 取足太陽腦中血絡.”
  - 317) “諸其色, 察其目, 知其散復, 一其形, 聽其動靜者……知其邪正者……右主推之, 左持而御之者……氣至而去之者.”
  - 318) “黃帝問于歧伯曰 余聞刺有五節, 奈何? 歧伯曰 固有五節, 一曰振埃, 二曰發矇, 三曰去爪, 四曰徹衣, 五曰解惑……發矇者, 刺府輪, 去府病也, 去爪者, 刺關節肢絡也, 徹衣者, 盡刺諸陽之奇輸也, 解惑者, 盡知調陰陽, 補寫有餘不足, 相傾移也……夫發矇者, 耳無所聞, 目無所見, 夫子乃言刺府輪, 去府病, 何輪使然? 願聞其故.”(『靈樞·刺節眞邪.)
- “歧伯曰 妙乎哉, 問也! 此刺之大約, 鍼之極也, 神明之類也, 口說書卷, 猶不能及也, 請言發矇耳, 尙疾於

## 2) 약물 치료

『내경』에 기재된 안과질환에 대한 약물치료 방법은 모두 세 곳에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素問·腹中論』에는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홍병과 지만한 병이 있는데 먹는 데에 방해되며, 병이 다다르면 먼저 비리고 누린 냄새를 느끼고 청액을 흘리며, 먼저 피를 토하고 사지가 청랭해지며, 눈이 아찔해서 안보이고 때때로 전, 후음으로 출혈하는 것은 병명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서 이를 얻게 되는지요?’ 기백께서 말씀하시길 ‘병명은 혈고라 하며, 이는 나이가 어렸을 때 크게 피를 흘린 적이 있거나 또는 술에 취한 채로 방중에 들어가 경기가 다하고 간이 상하여 얻어지기에 월경이 쇠약해져 내리지 않게 됩니다.’”고 하였다. 황제께서 말씀하시길 ‘이를 치료함에는 어떻게 하면, 회복시킴에 무슨 방술로써 해야 하는지요?’ 기백께서 말씀하시길 ‘오적골 4만푼의 양과 려여 1만푼의 비율로서 두 물품을 병합함에 참새알로써 환을 짓되 크기를 소두만 하게 하여 5환으로서 밤을 뒤로하여 먹는데, 포어즙으로 마시면 창중을 이롭게 함은 물론 손상된 간도 이롭습니다.’”고 하였다.<sup>319)</sup>고 기재함으로써 혈고로 인한

안과질환에 烏鯁骨과 蘆茹를 4대 1의 비율로 혼합하여 포어즙을 사용하여 다스린다고 하였다.

『靈樞·邪客』에서는 “지금 윗기가 오장육부에 침입하면 위기가 홀로 그 밖을 보위하여 양분에만 행하고 음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양분으로 행하면 양기가 성해지고 양기가 성하면 양교맥의 맥기가 충만해져 음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이 허해지므로 눈을 감지 못합니다. …… 그도를 통하게 하여 그 사기를 제거하는데, 반하탕 한제를 복용함으로써 음양이 이미 통하면 늑자마자 곧 잠듭니다. …… 그 탕방은 천리 밖에서 흘러온 류수 8되를 만 번 날리고 그 맑은 것을 5되 취하여 끓이되 갈대를 뿔나무로 불을 때고, 물이 끓으면 차좁쌀 1되와 반하 半습을 넣고 천천히 끓여 한되 반이 되면 그 찌꺼기를 버리고 즙을 작은 잔으로 한잔씩 하루 세 번 복용하는데 점차 양을 늘려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한도로 삼습니다. 따라서 그 병이 새로 생긴 경우에는 약을 먹자마자 눈고 땀이 나면 치유되고, 오래된 것은 세 제를 마시면 낫습니다.”<sup>320)</sup>라고 하여 차좁쌀과 반하를 이용하여 안과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靈樞·經筋』에서는 “근이 구급할 때는 눈을 감지 못하며, 열이 나면 근이 이완되어 눈을 뜨지 못합니다. 뺨 부위의 근이 한사가 있으며 급히 뺨이 땅겨 입이 돌아가고 열사가 있으면 근육이 이완되고 무력해져 수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입이 한쪽으로 비뺨어집니다. 이를 치료하려면 말기름을 쓰는데 말기름을 구급된 쪽에 붙이고 백주에 육계를 타서 이완된 쪽에 바른 다음 뽕나무를 꺾

發朦也 …… 此所謂弗見爲之。而無目視。見而取之。神明相得者也。”(『靈樞·刺節眞邪』)

“解脈令人腰痛。痛引肩。目眩荒然。時遺洩。刺解脈。在膝筋肉分間。郤外廉之橫脈出血。血變而止。”(『素問·刺腰痛』)

“邪在心。則病心痛喜悲。時眩僕。視有餘不足而調之其輸也。”(『靈樞·五邪』)

“故上氣不足。腦爲之不滿。耳爲之苦鳴。頭爲之苦傾。目爲之眩。中氣不足。溲便爲之變。腸爲之苦鳴。下氣不足。則乃爲痿厥心恍。補足外踝下留之。”(『靈樞·口問』)

“所治者。頭痛眩仆。腹痛中滿暴脹。及有新積。痛可移者。易已也。積不痛。難已也。”(『靈樞·衛氣』)

“刺此者。必於日中。刺其聽宮。中其眸子。聲聞於耳。此其輸也。”(『靈樞·刺節眞邪』)

“暴襲氣蒙。耳目不明。取天牖。暴襲刺眩。足不任身。取天柱。”(『靈樞·寒熱病』)

319) 黃帝曰 有病胸脇支滿者。妨於食。病至則先聞腥臊臭出清液。先唾血。四支清。目眩。時時前後血。病名爲何。何以得之? 岐伯曰 病名血枯。此得之年少時。有所大脫血。若醉入房。中氣竭。肝傷。故月事衰少不來也。帝曰 治之奈何 復以何術? 岐伯曰 以四烏鯁骨。

一蘆茹。二物并合之。丸以雀卵。大如小豆。以五丸爲後飯。飲以鮑魚汁。利腸中及傷肝也”

320) “今厥氣客於五臟六腑。則衛氣獨衛其外。行於陽。不得入於陰。行於陽則陽氣盛。陽氣盛則陽橋陷。不得入於陰。陰虛。故目不瞑 …… 以通其道。而去其邪。飲以半夏湯一劑。陰陽已通。其臥立至 …… 其湯方以流數千里以外者八升。揚之萬遍。取其清五升。煮之。炊以葦薪火。沸置朮米一升。治半夏五合 徐炊。令蠅爲一升半。去其滓。飲汁一小杯。日三稍益。以知爲度。故其病新發者。覆杯則臥。汗出則已矣。久者。三飲而已也。”

어 만든 갈고리로 비뚤어진 입을 끌어당겨 놓고 즉시 생 뽕나무 숯불을 땅 구덩이에 피워서 쪼이게 하는데 땅 구덩이 깊이는 환자가 앉아서 뺨을 불에 쪼일 수 있도록 하며 말 기름으로 구급된 뺨 부위를 찜질해주면서 좋은 술을 마시고 불고기 따위의 좋은 안주를 먹습니다.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도 스스로 힘써 마시게 하고 발병 부위를 재삼 문질러주면 병이 낮게 됩니다.”<sup>321)</sup>라고 하여 말의 기름과 술 그리고 온열요법을 이용하여 구안와사를 치료하려고 하였다.

### III. 結 論

『黃帝內經』에 기재된 眼科 醫論에 관련된 조문을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방면으로 분류하면 다음 【도표】와 같다.

분류	세목	조문수	소계	합계
생리	눈과 자연	20	163	376 (중복 36개)
	눈과 음양	12		
	눈과 장부	30		
	눈과 경락	43		
	눈과 정·기·진·액·혈	26		
병리	눈과 기타	32		
	운기 병변	52	169	
	음양 병변	14		
	장부 병변	24		
	경락 병변	48		
정·기·진·액·혈 병변	19			
진단	기타 병변	12	42	
	망진	40		
치료	기타	2	38	
	침구 치료	35		
	약물 치료	3		

【도표】 『내경』 안과 관련된 생리, 병리, 진단, 치료의 분류에 따른 조문 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황제내경』의 안과 이론은 동양 의학 전반에 걸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현대 안과에 관련된 전문적인 이론으로 심화시켰기에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1. 『黃帝內經素問』
2. 『黃帝內經靈樞』
3. 張從政 著 : 『儒門事親·金元四大家醫學全書』上,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2年.
4. 吳普 述 : 『神農本草經·中華經典醫書』卷4,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年.
5. 張仲景 述 : 『傷寒雜病論·中華經典醫書』卷2, 中國醫藥科技出版社, 2002年.
6. 皇甫謐 著 : 『鍼灸甲乙經』, 人民衛生出版社, 1996年.
7. 巢元方 著 : 『諸病源候論』, 人民衛生出版社, 1992年.
8. 孫思邈 撰 : 『千金方』, 華夏出版社, 1993年.
9. 王焘 撰 : 『外臺秘要方』, 華夏出版社, 1997年.
10. 李茂如 외2人 著 :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滙考』, 人民衛生出版社, 1994年.
11. 嚴世藝 외23人 著 : 『中國醫籍通考』,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90年.
12. 丹波元胤 著 : 『中國醫籍考』, 人民衛生出版社, 1983年.
13. 朴炫局 외2人 著 : 『中國科學技術史』, 一中社, 2002年.

321) “急者, 目不合, 熱則筋縱, 目不開, 頰筋有寒, 則急, 引頰移口, 有熱則筋弛縱, 緩不勝收, 故僻, 治之以馬膏, 膏其急者, 以白酒和桂以塗, 其緩者, 以桑鉤鉤之, 卽以生桑灰置之坎中, 高下以坐等, 以膏熨急頰, 且飲美酒, 啖美炙肉, 不飲酒者, 自強也, 爲之三劑而已.”